

우주인류의 창조자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해방의 창조하시고...

때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11월 8일 (토) 제 150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생명의 기원, 성경만이 답변!

퓨포럼, 진화론에 대한 미국인의 5가지 견해 설문결과 보도

기독교 신앙과 진화론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다. 그러나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독교와 현대과학의 오랜 논쟁이었던 '창조론'과 '진화론'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문제가 되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과거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를 탄압한 뒤 자리 잡았던 반과학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창조론을 고수해온 기독교에 비해 가톨릭은 상대적으로 진화론에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가톨릭교회는 과거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를 탄압한 뒤 자리 잡았던 반과학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창조론을 고수해온 기독교에 비해 가톨릭은 상대적으로 진화론에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따라서 '퓨포럼'은 그동안의 설문 조사를 종합 분석해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화론과 신앙에 대한 5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5 facts about evolution and religion)

1. 로마캐톨릭은 오래 전부터 진화론을 받아들여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만이 진화론과 교회의 가르침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한 교황이 아니다. 1950년 교황 비오 12세는 창조에 관한 캐톨릭 가르침은 진화론과 병행될 수 있다고 했고, 교황 바오로 2세도 1996년, 진화론은 바로 "가설 이상의 이론"이라고 인정했다.

2. 미국인들 중 32%만이 인간 생명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받아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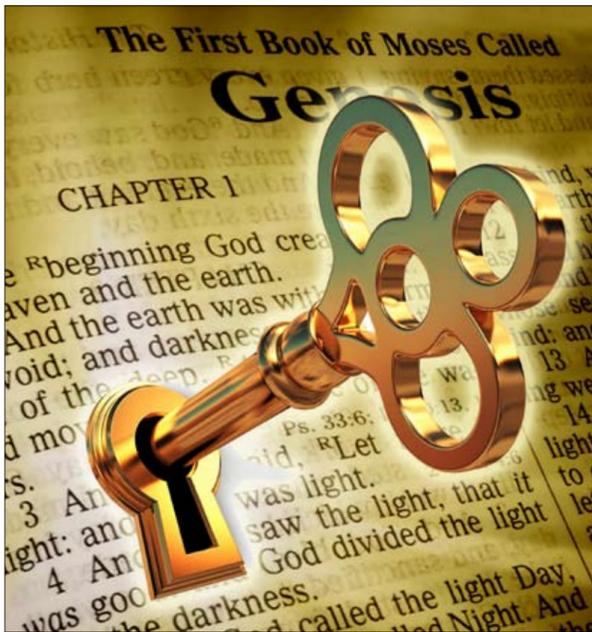
2013년 퓨리서치센터 설문에 따르면 미국인 중 60%는 인간은 오

랜 기간 동안 진화돼왔고, 이들 중 32%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자연적 과정들만을 통해 인간이 진화했다고 믿는다.

반면에 미국인 중 24%는 인간이나 다른 생명은 진화했지만, 이러한 과정은 바로 신적인 존재에 의한 창조 과정이라고 믿는다. 또한 33%의 미국인들은 진화론을 전적으로 배격한다. 바로 인간의 창조 때부터 지금과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3. 미국의 주요 종교들 중에서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을 가장 많이 배격한다.

거의 2/3(64%)의 백인 복음주의



진화론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를 확신할 수 있는 신앙이 더욱 필요하다.

자들은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은 창조 순간부터 현재의 형태를 가졌다고 믿고 있다. 이처럼 진화론에 대한 기독교 진영에서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한 극단에 있다면, 뚜렷한 교단이나 교회가 없는 교인들 중 57%는 생명이 자연적 과정, 진화를 통해 형성됐다는 또 다른 극단에 속한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진화론 배격은 곧바로 교회공동체에서 나타나게 된다. 남침례교단이나 루터교회(the Lutheran Church-Missouri Synod)는 성경적인 진리에서 벗어

난 창조론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있다.

4. 교회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미국 캐톨릭 중 26%는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미국 캐톨릭 교인 구성에 현재 탄력을 불어 넣고 있는 히스패닉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히스패닉 캐톨릭 중 31%는 인간은 창조됐다고 믿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잘 쉬고 많이 웃으면 행복해진다!

갤럽, '2014 국가별 '긍정경험지수' 따른 행복순위 발표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행복을 기원한다. 인간이 대개 행복추구를 삶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일 것이다. 행복은 재산순도 성적순도 아니라는데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의 비밀은 무엇일까. 바로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느꼈는지, 많이 웃었는지 등이 포함된 '긍정경험지수'에 따라 행복지수가 결정된다(Paraguay Is The Happiest Country In The World, Syria Reaches Record Low On Gallup's Positive Experience Index).

라틴아메리카인들 1위...미국 24위

"행복은 물질 아닌 정신적 만족"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라틴아메리카인들이다. 갤럽의 '긍정경험지수(Positive Experience Index)'에서 파라과이가 세계 1위에 올랐으며 파나마, 과테말라, 니카라과, 에콰도르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긍정적 감정의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대단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적어도 일정 부분 삶의 긍정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지역 문화적 경향을 반영한다." 갤럽 연구팀이 보고서에서 밝혔다.

갤럽은 2013년 138개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즐거움을 경험했는지, 많이 웃거나 미소를 지었는지, 잘 쉬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존중을 받았는지를 물었다. 그밖에도 지수 상 그들의 순위를 판가름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질문들이 포함됐다.

다른 대륙에선 덴마크가 유일하게 톱10에 올랐다. "충만한 삶을 누린다(thriving)"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수 아래쪽에선 시리아가 36점으로 갤럽 사상 최저기록을 세웠다. 잘 쉬었다고 느끼거나 또는 재미있는 일을 배우거나 한다는 응답자가 3명 중 1명꼴에도 못 미쳤다.

한편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를 개발한 부탄은 138개국 중 82위를 기록했다. 한 가지 주요 항목이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부탄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 받지 못한다고 여긴다. 그것이 종합점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원인일지 모른다." 연구팀은 그런 분석과 함께 부탄인 중 남들에게 존중 받는다는 응답자가 47%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긍정적인 측면에선 푸키었다는 답변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갤럽 라틴아메리카인들의 행복지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셈이다. 같은 조사에서 미국인들의 행복지수는 24위에 그쳐 경제실적과 행복지수의 순위가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고질적인 경제난과 범죄에 시달리는 라틴아메리카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국민소득을 비롯한 전통적 경제지표와 주관적 행복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조사 결과는 행복이 물질적 만족보다 정신적 만족에 더 좌우될 수 있다는 교훈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특히 신앙의 사람일수록,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에 따라 행복하게 산다는 하나님나라의 백성의 특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영혼의 사미...생각과 감정 나누는 안전한 환경 제공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노봉린 박사



인터뷰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정종원 교수

신, 구약과 예언서인 다니엘서·게시록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역 감당을 위해 불철주야 충성하시는 목회자 여러분에게 삼가 문안 인사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직·간접적인 계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교계에서 담아 두었던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만방에 구원의 말씀을 알리려 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금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통하여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의 삶을 영위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 받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미나 일정: 2014년 11월 3일~27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강사: 라흥채 목사 (뉴욕제자교회 담임)

회비: 무료 (점심, 목회자료 제공)

Table with 4 columns: Date, Location, Contact, and Details. It lists the seminar schedule across various churches and locations in the US and Korea.



- List of speakers and their credentials: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학사)(1962. 3-1968. 2), 미국 '테네코' 석유회사에서 13년간 근무(1972. 5), 미국 휴스턴 신학교, 미국 베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 미국 베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 미국 베다니 신학교 신학박사(Ph.D)(1996. 6), 뉴욕으로 이주, 뉴욕민선제자교회 설립(1996. 9), 뉴욕제자교회 담임목사(2012. 현재)



시론

“관성(慣性)의 법칙을 깨라”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300여명의 꽃다운 자녀들이 숨진 세월호 사고 200일을 지나오면서 온통 한국은 세월호 격랑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 지난한 아픔이 채 가시기 전에 한국은 또 다시 대형사고가 터졌다. 지난 17일 오후(한국시간), 서울 인근 성남시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걸그룹(포미닛) 공연 중 발생한 환풍구 붕괴사고로 16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입원 중이다. 환풍구 붕괴 사고도 단순히 숫자를 비교하면 여타의 사건에 비하여 아무런 관심조차도 끌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건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세월호 사고와 아주 유사한 안전사고의 전횡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주의하고 관리했으면 얼마든지 미연에 막을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렇지, LA타임스를 비롯한 뉴욕타임스, CNN, AP, AFP 등은 사고 소식과 함께, “한국이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경제 기적을 일궈왔지만 안전과 질차를 무시함으로써 잇단 대형사고가 발생, 전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소 조롱조의 논평을 내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 4월 300여명이 숨진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대형 사고를 일일이 열거하며 안전의식 부재를 질타하고 나섰다. “세월호 이후로도 5월 초 서울 지하철 추돌사고로 200여명이 다쳤고, 같은 5월 말에는 전남 장성의 노인 요양병원 화재사고로 21명이 사망했으며, 앞서 2월에는 경주에서 무너진 리조트 강당 건물에 깔려 대학생 10명이 죽고 1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의 논평은 우리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1970년대 남양호 침몰과 1993년 서해 헬리호 침몰 때도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20년 전 사고에서 전혀 배운 게 없다” 이외에도 1994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루 말할 수 없다. 부끄러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호들갑을 떨면서도 냉정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는 물론이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책을 세워나가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점진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인의 속성 가운데 범비근성이 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마치 범비의 끓는 물처럼 요란하게 떠들다가 몇날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금세 식어버리며 쉽게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마는 게으른 속성이다.

뉴턴의 운동의 법칙 가운데 “관성의 법칙”이 있다. 제1의 법칙이라 불리는 “관성의 법칙”은 원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즉,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하고, 정지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는 속성을 말한다. 일정한 충격이 오면 저항하다가도 자연스럽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에는 창조적이고 개혁적인 에너지를 거부한다. 그래서 ‘관성’(inertia)의 어원은 ‘게으르다, 쉬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iners’에서 나왔는지 모른다.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도, 신앙의 삶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가끔씩 영적 도전이나 충격적인 사건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쉽게 감동하며 흥분하는가! 그러나 조금 지나면 우리는 원래의 모습으로 쉽게 합리화하는 관성의 법칙이 어김없이 작용한다. 의로운 분노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원래 인간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우리는 쉽게 세속화와 타협하려는 관성의 법칙이 존재한다.

올해로 종교개혁 497주년을 맞았다. 종교개혁(reformation)은 한 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둠의 시대, 중세 1,000년의 교황권의 부패와 교회의 타락에 머물러있던 관성의 법칙을 깨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세속화가 인류역사 가운데 가장 어둠의 시대였던 중세시대를 능가하고 있지 않은지 반추해보아야 한다. 침몰하는 세월호의 모습에서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반추된다. 한국사회의 병폐는 곧 한국교회의 세속화의 열매는 아닌가! 한때 세계 최고를 자랑하였던 초대형 교회와 최고의 성공자로 자타가 공인한 모 목회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듯하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대형 사고는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대형교회 모 목사의 성추행 사건이 4년 만에 노회재판에 회부될 전망이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한국교회의 배금주의(拜金主義), 학벌, 외모 지상주의, 명예주의, 성공주의, 내실 없는 스펙주의와 같은 관성의 법칙들이 깨어질 때에 비로소 병든 사회, 신음하는 교회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영혼의 사قم...생각과 감정 나누는 안전한 환경 제공

소그룹닷컴, A. 프라일링의 소그룹 영성계발 위한 감정의 나눔 소개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민감해질 방법은 무엇일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알아차리며 그분의 사랑에 젖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대일 제자양육과 소그룹 제자훈련을 거쳐 영성지도로의 영적 여정을 걷게 된 저자 앨리스 프라일링(Alice Fryling)은 남편인 밥 프라일링과 함께 오랫동안 미국 IVF의 캠퍼스 사역자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영성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그녀가 말하는 그룹 영성지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영성지도를 통해 참여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정들이 말해 주는 진리를 수용하고 강력하게 초대하는 것이다.

감정이 사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감 없이 알려주는 도구다. 문화적인 영향이나 일시적인 선호 때문에, 혹은 신학적인 오해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간과해왔다. 우리가 계속해서 감정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도우시는데 사용하지는 의미 있는 도구로 하나님을 놓치는 셈이 된다.

감정은 정보의 원천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의 원천이다. 감정은 특정 사건에 대해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이다. 감정은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준다. ‘마음속의 보물’이란 우리가 삶



소그룹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 사실 우리의 정신과 두뇌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영성지도는 두뇌로 상징되는 머리는 무시하고 감정이라고 여겨지는 마음을 선호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는 생각하는가 아니면 느끼는가?

사고와 감정의 이분법은 오도된 경향이 있다. 그것은 마치 진리를 과학적 보고서로 설명하는 나, 시로서 노래하느냐의 차이를

느끼며 공연장을 나온다.

덤볼 속에 감춰버린 감정

우리 중 상당수는 감정은 감춰야 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실 때 우리는 몸을 숨긴다(창3:8-10). 상처, 분노, 시기, 두려움은 모두 하나님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들리고 싶지 않은 우리 안의 감정들이다.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 영혼의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 넣으면 결국 그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것들을 빛 아래 꺼내 놓고 우리가 느끼도록 스스로에게 허용한다면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교육과 강령, 독서 등을 통해 사고를 강화하고 정신을 고양시킨다. 그리고 감정을 논리적인 사고에 종속시킨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사고한다. ‘이런 기분을 가져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

시다. 그것을 알고 있잖아! 사고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를 명령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찬 감정들은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깜빡이는 엔진 경고등과 같이 우리 안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신호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진리의 빛이 아직 침투해 들어가지 못한 우리 안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알아차리도록 돕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영성지도는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쩌면 우리가 저항하고 있을 그 감

속에서 가장 많은 감정적, 지적, 영적 에너지를 투자하는 곳을 말한다. 무언가가 우리의 주의를 온통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인지를 하든지 못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일 것이다. 영성지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여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대화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3면으로 계속)

“소그룹 영성지도...감정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 임재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

구별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고와 감정 모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르치셨다. 때로는 교훈적인 가르침과 신학적인 논평을 통해 정보를 충전해주셨다. 하지만 예화와 비유를 통해 듣는 이들이 그가 묘사하는 진리의 감정을 경험하도록 초대하기도 했다. 사고나 감정이나 둘 중 어느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인간의 경험을 입체적으로 보기보다는 평면적이고 무미건조하게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연장에 앉아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듣게 됐다고 상상해보자. 음악이 절정을 향해 울려 퍼질 때, 관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음악적 변화를 알아차린다. 언제 바이올린이 멜로디를 전달하고 언제 목관악기들이 그것을 넘겨받는지를 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음악의 흐름에서 변화를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감정을 움직이기 때문에 교향곡 9번을 사랑한다. 음악을 사고하는 사람이든 음악을 느끼는 사람이든 모두 경이로움을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subscription form.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the university name, founding year (1986), website (www.midwest.edu), and a list of degree programs including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in various fields like Theology, Music, and Leadership.

# 따뜻한 격려 한마디, 공동체 살린다!

## 스몰그룹닷컴, 성경적 상담학자 래리 크랩과 댄 알렌더의 격려 통한 영적성장원리 소개

오랫동안 동일한 멤버들과 소그룹을 하다보면 소그룹의 기반이 돼야하는 말씀의 진리보다 관계 그 자체가 중심이 된다. 멤버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이 좋게 보일지라도 이러한 소그룹에는 커다란 위험요소가 내포돼 있다. 사람들이 말씀보다 관계를 우선하면 분열과 피상적인 태도가 조장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체험이 소그룹의 기준이 되어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다투게 된다.

또한 다른 분류의 소그룹이 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확실하게 정립된 신앙교백을 철저히 신봉하는 그룹이다. 이런 소그룹에 속한 크리스천들은 나름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확신은 자기만족이 되고, 교리의 정통성은 교조적 전통주의로 전락해간다. 이러한 소그룹은 결국 성장이 더디고 전도의 열매가 없는 체질로 굳어진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든, 소그룹이든, 기도모임이든 그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 모인 멤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안의 각종 모임은 목적을 잃어 갈등의 온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그룹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격려다.

일단 소그룹의 목적을 이해하면 답이 보인다. 소그룹이 유익한 자리가 되려면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말하는 속도보다 세 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은혜에 꼭 잠긴 말을 의미한다. 온유한 말은 마치 목자가 양 떼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막대기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치는 것과 비슷하다. 온유한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막을 꺼임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렇게 하므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나 마음을 사로잡는 기쁨을 마음껏 털어놓게 해준다.

따라서 격려란, 한 사람의 인생 여정에 합류하여 그가 장애물과 피로에 지칠 때에도 그 길을 계속 가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다. 우리는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야 한다.

그래서 격려는 격려하는 사람의 동기가 사랑에 근거해야 하고, 상대의 필요를 정확히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격려

#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레저 문화의 근원을 더듬어 보면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인간본능이 자리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걸어서 부산을 가는 것보다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 차를 탄다.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고가의 운임을 지불하면서 비행기를 선호한다.

편안함의 범주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인 조건이 배제된 편안함이란 가치도 의미도 없다.

미국 듀크대학 매디컬 센터의 웨이지양 박사는 미국 의학협회보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산소의 공급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심근허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한 마디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장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림대 의대 유흥준 교수는 "남성의 과도한 사회적, 가정적 역할이 초래하는 스트레스가 각종 질병 및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 증후군의 해법으로 여행, 스포츠, 취미생활 등 다양한 레저에 심취하는가 하면 경제적 투자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백지 아다다가 아니라면 돈을 주고 불행이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물질적 투자나 레저 문화의 영향력만으로 해소된다고 믿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인간의 존재 양식과 정신 구조라는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 속에서 인간의 존재 양식을 영과 혼과 몸으로 설명했다. 학자들 간에는 영과 몸으로 구분하는 이분설과 영과 혼과 몸을 하나로 보는 단일설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 활동의 지배와 지시를 따라 살고 활동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혼은 신앙을 통하여 구원받고 치유되며 새로운 활력과 평안을 얻게 된다.

그런데 그 영혼이 병들고 고사해 가는가 하면 평화 상실지대를 방황하고 있다. 한 마디로 영혼의 평화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다.

침예한 대립과 극한적 맞섬으로 이상적 모델을 제시해야 할 교회마저 전장화(戰場化)하고 있다. 웬 파가 그리도 많으며 계보는 왜 그리도 많은가?

우리는 걸핏하면 지역 패권주의나 이기주의의 운운하며 정치권을 힐난하곤 했다. 그러나 우리네에게는 정치권을 힐난하고 경고할 자격도 힘도 없다. 내 속에 없는 평화를 어떻게 남에게 강요할 수 있으며 내가 만들지 못하는 가치를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지금 한창 지구촌은 이데올로기의 능선을 넘어서 하나의 세계 구현으로 치닫고 있다. 아직도 국경 분쟁과 종족 갈등, 그리고 국가 간의 집단 이해 문제로 충성이 계속되고 있긴 하다. 그러나 남북과 대화와 화해로 어우러져 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아직도 병하 시대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저마다 옆구리에 성경 찬송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며 대문마다 교패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며 큰 소리로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찬송 부르고 싸우고, 기도드리고 싸우고, 설교 듣고 주먹다짐하는 소아병 환자들이다. 한 마디로 할 말도 없고 쓸 글도 없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은 복이 있을 진저” 우리 시대는 극심한 평화 기갈로 목타고 있다. 평화를 큰 마당이어야 할 교회는 선인장 뒤덮인 사막으로 변모해가고 평화를 메신저여야 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링 위의 복서처럼 숨을 내쉬고 있다. 21세기의 전광판에 대문짝만한 글씨로 ‘평화’를 새겨 넣어야 한다.

## 사랑에 근거한 동기로 상대 필요 정확히 분별하는 지혜 있어야 경고, 꾸짖음, 교정, 가르침, 설명, 공감, 반성, 노출...방법 다양

님과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배워야 한다. 교회는 원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평강과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이들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공동체이다. 이 일에 모든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상대방이 점점 더 거룩해지도록 세심하게 선택한 말로 상대방을 격려하는 일이다.

말에는 위력이 있다. 야고보는 우리 혀가 몸에서 지극히 작은 기관이지만, 인간의 존존의 향방을 결정하는 위력이 있다고 말한다(약 3:5-6). 이는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뿌리를 둔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첫째로 더디게 말을 한다. 사람이 듣는 속

그 결과 사연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어설픈 대답을 할 경우가 종종 있다. 더디 말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여유를 가져야 한다.

둘째로 당신이 하는 말에 민감해져야 한다.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성품과 그가 처한 환경에 적절한 말로 응수해야 한다.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훈련과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던져보라. “이 사람을 보듬어주는 데 가장 좋은 말은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셋째로 온유하게 말한다. 온유한 말이란

는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다. 경고, 꾸짖음, 교정, 가르침, 설명, 공감, 반성 또는 자신을 노출하는 말일 수도 있다. 말하는 동기가 사랑이고 방향이 상대방의 두려움을 향할 때, 비로소 격려의 말이 될 것이다.

또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순진한 관심이 드러나도록 말해야 한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으며,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소망을 심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격려의 영향력이다. 그 소망이 사람들을 움직여 피곤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과 더 많은 선행에 힘쓰도록 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견디게 해준다. 격려는 완전히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격려는 사람에 대한 민감함이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꾸준히 가꾸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1면에서 계속) 5. 잇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립학교에서는 창조론이나 지적설계론을 가르칠 수 없다.

주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고 대신 대안을 교육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

은 계속해서 진화론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1987년 미 대법원은 판결(Edwards v. Aguillard)을 통해, 루이지애나 주법에 따라 공립학교 학생들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 바로 미국 헌법의 종교나 정부 불간섭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단순한 생물이 자연선택을 거쳐 고등한 생

물로 진화했다는 진화론은 교황의 동의로 인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진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물음 즉 ‘진화 자체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다시 말해 ‘생명이 진화한다면 그 생명은 어떻게 생겨났나’라는 물음에는 무력하다. 이에 대해 진화론은 사실상 알아낸 게 없다. 성경만이 그 대답을 준다!

(2면에서 계속) 결론으로, 소그룹은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깊은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고요하고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정체를

밝히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자리를 열어드리는 것이다. 감정에 집중하는 목적은 그 감정들 속에 젖어들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고를 명료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러한 감정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

님의 임재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해질 때,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빌4:7)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 2015 봄학기 수업 안내

Feb 16-20(2월 16 -20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eb 23-27 (2월 23-27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DI8310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기독교 박해자(10)-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번 회로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의 10대 황제에 대한 것은 끝을 맺게 된다.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의 마지막 황제라 쓰였는지 모르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은 모든 가장 맹렬했고 혹독했다. 그래서 기독교도들은 그를 말세에 나타난다고 예고된 적그리스

도가 아닐까? 여겼을 정도였다. 오래 전에 리퍼부리카(Piazza Repubblica) 광장의 인근에 있는 성당에 갔다가 한국인 수사분을 만나게 되었다. 로마에서 한국인 수사를 만나니 참 반가웠다. 그의 설명을 들으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목욕장이 테르미니(Ter-

mini)역에서부터 미 대사관 주 변, 그리고 스페인 계단의 인근까지 포함된 대단히 넓은 공간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보통 테르미니(Termini)역을 종착역이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라틴어 테르메(Terme 목욕장)이라는 의미라고 아는 분은 많지 않다. 그럴 정도로 그의 목욕장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 목욕장의 남은 터 일부분을 성당으로 개조하여 로마의 특별한 명사들이 죽을 때 그 곳에서 장례식을 한다. 그래서 몇 년 전 유명한 지휘자 시노폴리의 장례식을 그곳에서 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의 국력이 쇠락아가는 시기에 크로아티아에서 비천한 노예로 태어났다. 그는 군대에 들어가 각고의 노력으로 황제의 친위대장이 되었고 누메리아누스 황제가 니코메디아에서 살해되자 휘하 군대의 추대

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밀바닥에서 권력의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으로 황제가 된 후 국내의 혼란을 수습했고 사방의 적을 물리침으로 경계선을 안정시킨 지도자였다. 참으로 오랜만에 로마의 안정을 도모한 황제였다.

그는 대제국 로마를 혼자서 통치하기에 벅차다고 느껴 두 명의 황제와 네 명의 부제를 임명하여 분할 통치했다. 그래서 자신이 동방의 정제였고, 부제는 갈레리우스를 임명했고, 서방의 정제는 막시미아누스요, 부제는 콘스탄틴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였다. 이처럼 두 정제와 네 명의 부제가 통치하였기에 훨씬 안정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던 중 페르시아의 닷세르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도나우 방어선의 3개 군단과 기병대까지 참여시켜 페르시아 군을 격퇴시켰고 또 후진을 맺어 메소

포타미아 북부를 관할하고 더 이상 확장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꼼꼼 묶어놓았다.

그의 종교 정책을 보면 초기에는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았다. 고로 부인 프리스가 딸 발레리아와 대부분의 내시들과 공녀들도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는 부제요, 사위인 갈레리우스의 충고 때문이었다. 그는 황제의 심복이면서 사위였다. 그런 방의 정제였고, 부제는 갈레리우스를 임명했고, 서방의 정제는 막시미아누스요, 부제는 콘스탄틴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였다. 이처럼 두 정제와 네 명의 부제가 통치하였기에 훨씬 안정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던 중 페르시아의 닷세르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도나우 방어선의 3개 군단과 기병대까지 참여시켜 페르시아 군을 격퇴시켰고 또 후진을 맺어 메소

303년 2월 23일에는 니코메디아에 새로 건축한 교회를 파괴하도록 했고 교회의 보물을 압수했다. 특히 2월23일이 로마의 신 테르미누스(Terminus)를 위한 축제일이었기에 그 날에 기독교인들을 전멸시키기로 작정했다. 다음날 24일에 칙령을 내려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성경책과 예식서를 압수했고 예배를 위한 모든 모임을 금지시켰다. 명령에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의 공직을 박탈했고 그들을 범죄자로 선언했다.

또한 니코메디아에 있는 자신의 궁전에서 두 번의 화재가 발생하자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워 로마의 신전에 희생제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모두 검거했는데 그 가운데는 자신의 아내와 딸도 있었다. 이 핍박으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수형을 당했다.

(14면으로 계속)

## 푸/른/초/장

피종진 목사  
(남서울중앙교회)



사랑은 가까이 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은 놀랍도록 변하게 합니다. 사랑은 만사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본 비유는 흔히 "악한 농부들의 비유"로 일컬어집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와 십자가에 죽음을 예고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저버린 채 독생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 만들어주시고 기대하시는 사랑(9, 10절)

9절의 "...만들어...세로 주고"에서 '만들어'란 포도원을 기르던 옥토에 만들었다는 뜻이며, '세로 주고'란 소작인에게 포도원 경작권을 부여하고 소출의 1/2정도는 반드시 상납하도록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 마21:33과 막12:1-12에는 ①산짐승이나 도둑을 막기 위해 돌레를 도랑을 파거나 혹은 가시나무 같은 것으로 '산울'을 두르고 ②포도즙을 짜기 위해 두 개의 구멍이 파서 즙 짜는 구유를 만들고 ③침입자 감시를 위해 높게 망대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다. 이처럼 포도원 주인은 소작인이 농사만 열심히 짓도록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소출의 정한 양은 주인으로서 반드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28)는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고(행17:25), 기도하면 제일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눅11:13), 더욱 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도 주셨고(요17:8), 더 나아가서는 영생 곧 천국도 주셨습니다(요일5:11). 그리고 직분과 사역에 따른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주셨습니다(벧전4:10). 마지막으로 더할 나위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의 하

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소출을 기대하고 종을 보냈는데, 악한 농부들은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습니다. 그대도 노하지 않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려니 하는 넓은 마음과 인내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보냈으나 그들은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끝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13절)는 기대와 보복이 아닌 회개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기 "어찌할까?"라는 주인의 말은 악한 농부들을 권고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숙고하는 포도원 주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나타낸 말씀입니다. 이

##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20:9-18)

나눔께 우리는 최대의 감사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2. 인내와 자비의 사랑(10-13절)

포도는 심은지 5년이 지나야 상품적 가치를 지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것도 주인에게 바칠 것도, 자신들의 생활비용도 마련할 수 없어 포도나무 사이에 적절한 곡물과 채소를 심어 생계유지를 합니다. 이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포도원 주인은 5년이란 기간을 계속 투자만 하게 됩니다. 그러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처럼 무한한 자비와 인내로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벧후3:8, 9). 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자비와 인내의 부드러운 손길을 펴시고 계십니다.

3.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가 겸비된 사랑(16-18절)

인간이 멸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을 회개치 않음의 결과이며, 감사가 없는 지나친 탐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은 1948년 5월에 비로소 독립국가 이스라엘로 세계에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약 1500만-20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야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그들에게 가족 붓을 지어 입혀서, 소돔 고모라 멸망 시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조카 롯의 가정을 구출해내셨으며,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도 불평을 보내어 심판하시고 구리뿔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6.25 동란으로 인한 채찍, IMF로 인한 채찍 등 특별히 금년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건', 그 얼마나 아팠고 괴로웠던 사건들이었습니까? 그러나 다시 두 손 들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도 참고 기다리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회개치 않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자답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자비와 은총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최후까지 하나님의 보좌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는 중요한 고비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최후의 고려(考慮) 표시입니다(창3:13, 삼상2:29).

이처럼 포도원 주인은 사랑하는 유일의 아들까지 보내어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는 포도원 주인의 인내와 자비입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의 외침도 거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까지 죽이고, 최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 보내신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을

욕으로 인하여 이미 받은 것도 잃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의 악행에 대한 보복보다, 징계보다 회심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으나 주인의 기대는 허물어졌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그들에 의해 비참히 죽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마21:41에는 제 때에 실과를 바칠만한 다른 소작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당시 자신들이 공언했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마27:25b)라는 말대로 AD70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였고, 기나긴

# 미주 갈멜산기도원 특별 기도성회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크리스천들은 기도로 무장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영적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날짜** 2014년 10월 23일(목) ~ 11월 6일(목)

※주일 성회는 없습니다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www.galmelsan.or.kr / gstcenter98@gmail.com



장순직 목사

드림교회 담임  
사단법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한반도 회복 기도 운동연합 대표회장  
CTS 운영이사  
총회(합동) 부흥사회 증경회장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한 번 진화론과 빅뱅이론 수용으로 세계를 뒤흔들었다. 지금까지 카톨릭이 취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에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지만 마침내 교황이 폭탄선언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명이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생각이 카톨릭의 가르침과 충돌하지 않는다... 세상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빅뱅 이론도 하느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톨릭교회는 진화론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과거 비오 9세의 바티칸 1 공의회는 선언은 성모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 교황의 무오성을 선포했다. 기억할 것은 교황의 무오설은 예외 조

진화론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은 어떠한가?  
2012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45%가 진화론을 믿는다. 창조론의 32%보다 더 높았다. 지난 2001년의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창조론 36%, 진화론 29%)보다도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창조론을 75%가 믿는데 비해 카톨릭은 42%가 창조론을 믿었다. 한국 기독교인 중에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14%에 비해서 카톨릭은 31%로서 천주교인들이 진화론을 더 많이 수용함이 밝혀졌다.

미국을 보면 2013년 Pew Research

에서 열린 재판에서 진화론자들과 지적설계론자들의 대표적 논쟁 결과는 지적설계론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카톨릭은 이 싸움에서 이미 물러나 있다.

카톨릭 내의 유신진화론theistic evolution은 오랜 역사를 가진다. 18세기말부터 국부홍수론local flood, 진화론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John Henry Newman(1801-1890)이 추기경이 되면서(1877) 진화사적의 발간을 허락하는 영향력을 보인다. 벨그송의 “진화적 창조Evolution Creation”의 영향을 받은 사르탱Teilhard de Chardin은 예수고 신부로 유신진화론 보급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유신진화론은 기독교 내에도 있다. 6월 상징설을 위시해서, 찰머스(1780-1847)의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간격설, 노아홍수가 단 한번 전 세계적 홍수가 아니라 여러 번의 국부적 홍수가 일어났다는 다중격변설, Pember는 6기간설, 버클랜드의 제자인 라이엘(1797-1875)의 지질

인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움직임은 이신론적Deism사상을 보여준다. 이신론이란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지만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자연적 법칙이 운영한다는 것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거부하면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소위 알렉산더파들의 상징적 해석방법은 과학과 성경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그 문해와 타협방법을 찾는 쉬운 방법에 하나이다.

진화는 일반적으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하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 대규모의 진화Macro evolution이고 (2)다른 하나는 같은 종 안의 변화하는 소규모의 변화Micro evolution이다.

첫째로, 우리는 대진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생명이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한 종에서 다른 종류로 진화된다는 것은 성경과 거스른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종류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slpc0316@gmail.com

**Q:**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입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많은 사랑과 영적 지도를 받고 있는데 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회자에게 어떻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을까요?  
-사우스베에서 권 권사

**A:**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다른 이웃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와는 달리 목회자와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목회자를 쉽게 생각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늘 목회자를 존경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잘 듣고 영적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신앙점수도 올라갑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분은 수학선생인데 수업에 들어와서는 가끔씩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에 큰 믿음은 없었지만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어 그 선생님이 싫어지자 그 선생님

### 목회자와 성도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

의 강의가 제 귀에 잘 안들어왔습니다.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았는가 하면 제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수학에 취미를 잃고 수학 성적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별 것 아닌 사소한 문제로 목회자와 사이가 나빠지면 손해는 본인이 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목회자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다 위선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좋아지면 그 선생님의 가르치는 과목이 흥미가 생기고 결국은 그 과목의 성적은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적이 올라가려면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살전5:12-13).

특히 목회자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십시오. 저는 갈6:6 절을 성도들에게 가끔씩 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목회자는 외롭게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하지만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신앙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비뵤처럼 목회자의 곁에서 위로자가 되고 용기를 주는 자가 되십시오. 목회자는 말씀으로 신령한 것을 주고 성도들은 모든 좋은 것을 목회자와 함께 나누십시오. 가끔씩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예배를 부탁하고 식사도 초대하며 여러분의 문제를 상담하고 기도도 요청하십시오.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오.

## 또 다른 실패: 카톨릭의진화론과빅뱅의수용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향이 있다. '정치 경제 과학 역사' 에는 적용을 받지 않고 '오직 교황 좌'에서 선포한 것만 무오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비오 9세의 선언 중에서 창조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반 진화론으로 해석되었다. 비오 12세는 성 모승천성을 교황좌에서 선언했다. 하지만 진화론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반대 입장을 갖다가 나중에는(1950년) 진화론이 인간발달에 대한 타당한 과학적 접근이라고 했다. 요한 바오르 2 세 역시 1996년 진화론이 교리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도 진화론은 창조를 제한적으로 설명한다고 말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이번 선언은 훨씬 더 나갔지만, 교황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바티칸 교황청 과학원 회의에서 한 것이다. 잘못되었을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한 것이다.

지금까지 카톨릭은 교황의 무오설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갈릴레오의 사건은 교황의 무오설에 결정적인 치명타였다. 그 뼈아픈 실수가 500여년간 카톨릭의 악몽이 되었다. 마침내 베네딕토 2세는 갈릴레오에 대한 카톨릭의 잘못된 해석을 인정했다. 거기다가 진화론을 과학적 이론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만회하기 위해서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려다보니 현재 다수가 되어있는 진화론의 편에 손을 든 셈이 되었다.

Center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60%가 진화론을 믿고 있고, 33%는 진화론을 거부한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 중 32%는 무신론적 진화론의 입장이다.

반면에 창조론은 미국의 백인 기독교 복음주의자는 64%가 믿었고 흑인 개신교인은 50%가 믿는다. 자유주의적인 주류교단 백인 기독교인은 15%만이 창조론을 믿고, 백인 가톨릭 신자는 26%가 창조론을 믿는다.

퓨리서치 조사의 흥미있는 부분은 진화론을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과 자연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에 대한 조사이다. 백인 기독교 복음주의자는 27% 중 유신론적 진화론과 자연적 진화론을 믿는 비율이 18대8로 유신론적 진화론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흑인 기독교인은 44% 중 25대17, 주류교단 백인 기독교인은 78% 중 36대36, 히스패닉가톨릭 신자는 53% 중 19대27, 백인가톨릭 신자는 68% 중 33대33을 기록했다. 이미 일반인들도 성경과 진화론을 조화시켜 보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왔음을 보여준다.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도들은 그레도 창조론을 지켜 나가고 있다. 이미 카톨릭의 자제는 진화론과 빅뱅이론의 수용도 확실히 돌아섰다. 미국의 창조론 지지자들이 주장해온 지적설계론Intelligence Design도 거부 당했다. 2005년 펜실베이니아 도버 시

학 원리에서 동일과정설을 주장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지층이 형성되었다는 진화론을 수용하는 것이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Francis A. Schaffer, Edward Young, Herman Bavink, 그리고 복음주의 과학자들이 주축이 된 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 등은 6일을 긴 기간의 의미로 해석했다. 미국의 풀러신학교 학장이던 Edward John Carnell은 “지질학적으로 ‘문자적 하루설’이 부정되었으므로 순간창조설은 확실히 불수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먼지에서 나온 피조물에게 불어 넣기를 기뻐하셨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온전히 수용한 것이다.

빅뱅Big Bang이론은 137억년 전에 대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설이다. 하지만 누가 빅뱅을 일으켰는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유신론적 빅뱅설은 그 해답을 준다. 하나님이 빅뱅을 일으키셨고 나머지는 진화적 과정을 취했다는 입장이다. 진화론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며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되었다는 이론이다. 빅뱅과 진화론은 둘 다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론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카톨릭의 선언은 하나님이 빅뱅을 일으키셨고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시작되고 진화론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이다. 논리적인 해답 같지만 성경의 해석의 근본적

로according to its kind'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다고 여러 번 강조한다. '종류'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10번,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동물들에서 6장에서 3번, 7장에서 4번, 8장에 1번 반복된다. 성경은 처음의 창조도 보존도 '종류대로' 되었다고 하신다. 종의 변화는 없다.

하지만 같은 종 내의 진화micro evolution은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Micro Evolution은 허락하신 것으로 본다. 같은 종 안에서 환경에 따라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귀뚜라미가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서 색깔과 모양이 다양해진다. 같은 종 내에서 변화이다. 이것은 변화이고 적응이다. 이것을 진화론자들은 진화의 증거로 채택하지만 귀뚜라미가 귀뚜라미가 아닌 다른 동물로 진화된 증거는 없다.

카톨릭은 성경의 잘못된 해석으로 과학자 갈릴레오와 싸우다가 싸움에는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은 과학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는 과학과의 타협을 목적으로 성경의 해석을 약화시키고 과학적인 해석을 공격으로 수용했다. 이것이 과학에 무릎을 꿇은 또 다른 카톨릭의 패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든지 앞으로 진화론과의 진화론적 세계관과의 싸움이 더 외로워질 것 같다.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 한국어 프로그램 집중강의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한국어 프로그램에서는 12월과 2015년 1월에 두 차례의 집중강의를 개설합니다.

#### 1. 어거스틴의 신학과 생애

일 시: 12월 8일(월)-12일(금),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장 소: 3225 Tyler Ave. El Monte, California CA 91731  
강 사: 조창호 박사(베일러 대학교 교수)  
강사약력: 조창호 박사  
베일러 대학교 Ph.D (어거스틴)  
고든콘웰신학교 Th.M  
한국장신대학교 신대원 M.Div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2. 로마서 읽기

일 시: 2015년 1월 5일(월)-9일(금), 오전 9시- 오후 4시 30분  
장 소: 3225 Tyler Ave. El Monte, California CA 91731  
강 사: 김도현 박사(콜로라도 크리스천 대학교 신약학 교수)  
약 력: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 Ph. D (로마서 9-11장의 문제)  
에일대학교신학부 STM  
풀러신학교 M.Div  
UCLA 역사학

연락처: 학교 (626)448-0023,  
Korean Program Director 김재영 목사 (562)665-5057  
본 강의는 본교 학생들 이외에 관심있는 목회자, 신학생, 성도들의 수강도 가능합니다. 정장을 원하는 분은 청장비 \$140을 내셔야 합니다.  
M.Div, MA, Th.M, D.Min 과정 학생 수시 모집합니다



###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 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청빙

North Carolina 그린스보로 주님의교회는 2012년 6월에 개척한 교회로서 현재 학생철임시담임목사님께서 섬기시며, 약 장년 35명, 어린이/청소년/대학생 16명이 정기출석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에 The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ARP) 교단에 가입한 교회입니다. 저희 주님의교회는 하나님 한 분 만의 영적권위를 인정하며,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이 살아있는 예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로, 이민 1세와 2세가 함께 이 미국 땅에서 복음주의 신앙을 지켜가고자, 아래와 같이 제2대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 ◀ 자 격

1. 정규 신학대학 Th.M 혹은 M.Div 학위 이상 소지한 분
2. ARP 교단에 가입이 가능하신 분
3. 담임, 부목사 혹은 선교사로 3년이상 경험 있는 분
4. 미국 시민권/영주권 소지자 혹은 영주권 신청 가능한 분

####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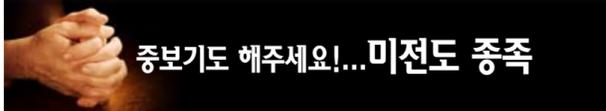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신앙고백/목회철학/목회비전 등을 포함)
3. 최근 6개월 이내 음성설교 (CD or audio file)

#### ◀ 제출마감

1. 마감일은 없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서류심사를 시작합니다.
2. 서류는 Email로만 접수합니다. gsolordchurch@gmail.com
3. 전화문의: 박희현 청빙위원장 (336-254-9350)
4.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임된 분에 한해서만 개별통지 합니다.

### 주님의 교회

LCGG Location: 4900 West Wendover Avenue | Jamestown, NC 27282  
Inside of Life Community Church  
● (336) 995-7651 ● gsolordchurch@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라오(LAO)



라오(또는 라오계 타이)족은 라오스의 저지대에서 거주한다. 이들은 루앙 프라방(Luang Prabang)에서 남쪽으로 캄보디아 국경까지 이르는 메콩강 계곡과 그 주변 도시들에서 살고 있다. 라오족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라오어(Lao)이며, 라오어는 타이 언어군에 속하는 라오-푸타이(Lao-Phutai) 계열의 방언이다.

원래 라오인들은 수세기 전 중국에 살았지만 중국인들의 끊임없는 압력으로 남하해 8-9세기경에는 메콩강변에 정착하게 됐다. 제2차 세계대전시에 공산주의자들이 라오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렸으며, 이때 많은 라오인들이 버마(미얀마), 태국, 라오스로 피난했다. 수년에 걸쳐 라오스는 많은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으며,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이 라오스를 놓고 정치적으로 경쟁했다. 집락, 내전, 프랑스 식민통치 등의 혼란한 역사를 거친 뒤 현재는 주위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갖게 됐다.

삶의 모습

라오족 대부분은 쌀농사를 짓는 농부들이며 면화, 팽나무(실크 생산), 야자수, 이외에도 다양한 과실 수들도 기른다. 이들은 농사에 물소가 끄는 목재 농기구를 활용한다. 일부 농부들은 대장장이나 목공, 광부 등의 일을 하기도 한다. 메콩강 유역에서 금뽕 아니라 철과 주석들을 채취한다. 어떤 촌락들은 도끼와 같은 공예품으로 특화되거나 담배나 솜 등의 특산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일련의 라오인들은 고기 잡는 일에 종사하기도 한다. 라오인들은 평지에 사는 것을 선호하며 외부 접촉이 용이한 강 유역이나 중국 상인들과 접촉이 가능한 교역로를 따라 촌락을 형성한다. 촌락의 규모는 열 가구부터 수백 가구까지 다양하다. 라오족의 가족은 전통적으로 나무나 대나무로 만들어지며, 고상식 가족(막대기둥을 세우고 땅에서 얼마간 거리

를 두고 집을 세움)이다. 가금류, 돼지, 염소 등과 같은 가축들이 집 아래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다. 거의 모든 집들이 가축을 팔기 위해 황소와 물소를 기른다. 촌락 생활의 중심에 불교인들의 "와트(WAT)"나 사원이 있다. 일반적으로 마을 지도자는 세속적인 일을 담당하는 수장 역할을 하고 종교적 사안을 담당하는 것은 불교 수도승이다. 라오족 사회계급은 엄격하지 않아 세속적인 엘리트 계급을 형성하는 일은 없다. 라오족의 사회구조는 혈통이나 씨족과 같은 확대된 개념이 아닌 가족 단위에 기초하고 있다. 결혼 전 난혼(성적 문란)은 상대적으로 흔한 편이다. 라오족의 엘리트 계층은 행정수도인 비엔티안(Vientiane), 왕정수도인 루앙 프라방(Luang Prabang), 메콩강변의 몇몇 도시들과 같은 중앙 집중화된 지역에 주로 거주한다. 라오족의 엘리트계층은

서구화된 생활양식을 주도하면서 여성들의 전통의상인 치마 "파신(pha sin)"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대량 생산된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라오족은 옷감 직조, 바구니 엮기, 목재 조각, 상아 조각, 금은공예품 등과 같은 다양한 민속전통 예술품을 만든다. 또한 많은 전통 악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케네(khene)"라는 대나무 악기가 가장 알려져 있다.

신들은 두려워하며, 성가와 의식 및 제사 등으로 이들을 달래려고 노력한다. 또한 이들은 인간의 존재가 윤회과정을 통해 죽음과 재탄생을 되풀이한다고 믿는다. 라오족 중 3분의1 정도가 정령 숭배와 불교가 혼합된 토속신앙을 믿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초자연적 존재와 대상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의 신들(territorial deities)"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앙 절반 이상의 라오족들은 불교도다. 전통적으로 젊은 남성들은 석 달씩 마을 수도원에 들어가 불교를 공부한다. 라오족의 불교도들은 정도(올은 생각), "제사의식(ritual sacrifices)", "자기부인(self-denial)"을 통해 자신들의 영혼이 "열반"(nirvana-극락의 상태)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

필요로 하는 것들 라오족 사람들은 과거 전쟁과 유희사태들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다. 이들은 내적치유와 참된 영적 소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라오족을 묶고 있는 사망의 끈을 끊을 힘이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캐나다 교회 웹사이트에 IS지시 메시지 게시

X 캐나다 온타리오주 베리의 한 교회 웹사이트에 "나는 IS를 사랑한다"는 제목으로 미국을 처단하자는 내용의 메시지가 게시돼 있는 것을 교회 관계자가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내용은 IS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미국을 몰아내자고 주장하면서 전폭기와 피를 흘리는 폭격 희생자 사진을 함께 실고 있었다. 교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웹사이트를 복원, 정상화했으나 해킹이 언제 이루어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 협정에 이르렀다고 전했으나, 이들은 폭력적인 공격과 납치를 멈추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나이지리아 외부부장관은 이 같은 공격이 치북 여학생들의 석방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박했다"고 전했다. 아미누 왈리(Aminu Wali) 외부부장관은 지난 27일 "여전히 협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곧 협상이 어디쯤 왔는지에 대해 알릴 것이다. 최근 납치 사건은 보고하람과 무관하며, 휴전을 깨려는 세력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래 보고하람이 납치한 여성은 5000명이 넘는다. 이들은 결혼 및 이슬람 개종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성폭행에 시달린다. 보고서는 또한 이들의 납치 대상은 주로 기독교인과 학교 교육을 받은 소녀들이며, 피랍된 남성들은 무장대원에 합류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하람은 이슬람 칼리프 국가 수립을 목표로 지난 5년간 나이지리아에서 각종 테러와 납치 행각을 벌였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파키스탄 국경서 자살폭탄테러 55명 사망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 55명이 사망하고, 120명 이상 부상을 당했다. 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와 파키스탄 주요 교역통로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테러는 인도와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 동부 라호르 인근 검문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라호르 인근에 있는 와가 국경검문소의 파키스탄 쪽에서 진행되는 국기하강행사를 보기 위해 8,000여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폭탄이 터져 피해가 더욱 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대해 지난 6월 이후 파키스탄 정부군이 서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탈레반 소탕 작전을



펼치면서 처음 시도된 자살폭탄테러라고 전했다. 현지 경찰인 아즈말 부트는 "10대로 보이는 테러범이 자신의 몸에 두르고 있던 폭약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이번 테러는 이맘 후세인(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손자)의 순교(서기 680년)를 애도하는 아슈라를 맞아, 파키스탄 전역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발생했다. 한편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수년간 탈레반 반군의 무차별 살상과 테러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탈레반 반군 1,100여명이 사살되고 100명 이상이 투항했다. 정부군도 100명이 희생됐다.

9·11 때 붕괴된 성니콜라스교회 재건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공개한 성 니콜라스교회의 조감도. 미국 그리스정교회 홈페이지지 2012년 미국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WTC)와 함께 붕괴된 성 니콜라스교회가 재건된다. 미국 그리스정교회(정교회는 최근 뉴욕 맨해튼 WTC 터인 '그라운드 제로'에 교회를 재건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신축 중인 WTC를 관할하는 뉴욕주지정항만관리청과 정교회는 그동안 교회 부지 및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여 재건이 불투명했지만 최근 합의했다. 정교회는 성 니콜라스교회 설립 100주년인 2016년 다시 예배를 드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성 니콜라스교회는 이전과 비슷한 규모인 건축면적 381㎡(약 115평)로 지어진다. 150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2층에는 테러 희생자 추모관이 마련된다. 외관은 흰색 대리석의 돔 형태다. 교회 곳곳에 LED조명을 달아 야간에 주위를 환하게 밝힌다. 불에 탄 성경과 망가진 촛대 등 건물 잔해에서 수거한 교회 물품도 전시할 예정이다. 신축 WTC 내 교통시설을 설계한 스페인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설계했다. 정교회는 교회 재건에 대해 "혼돈의 시대에 영적 안정이 필요한 이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지정항만관리청 측은 "맨해튼 5번가의 성 패트릭성당처럼 상징적인 예배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회 재건에는 모두 3800만 달러(약 399억원)가 들어간다. 정교회는 지금까지 700만 달러를 모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모금을 하고 있다. 옛 WTC 남쪽 빌딩 옆에 있던 성 니콜라스교회는 1916년 그리스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로 9·11 테러 전에는 주일마다 70여명이 예배를 드렸다.

존 파이퍼 목사 "메이너드의 존엄사, 안타깝다"

미국 기독교의 대표적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가 존엄사를 택한 브리튼니 메이너드(Brittany Maynard·29)에 대해 애도를 표명했다.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 브리튼니, 브리튼니, 당신의 죽음에 대한 슬픔만이 그 죽음을 주는 메시지의 불행함을 넘어선다"는 글을 게재했다. 파이퍼 목사는 그러나 안락사에 반대한다며, 그 이유로 "삶과 죽음에 있어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맘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퍼 목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고난을 견디면서도 늘 죽을 이후의 삶을 바라보았던 바울 사도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겪는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준비시키며, 목적 없는 괴로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 외 버몬트, 몬타나, 뉴멕시코, 워싱턴 등 총 5개 주에서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미 수백 명의 불치병 환자가 오리건 주에서 존엄사를 선택했다. 이에 메이너드와 남편 덴 디에즈,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오리건 주로 이사했다. 지금까지 존엄사를 택한 환자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이었으며, 30세 이하는 그녀가 처음이었으며 그녀의 죽음은 전국적으로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년 월 일 신청인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담임목사 청빙

베이지역 오클랜드 남부에 위치한 말씀의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지원하실 분의 자격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영어와 한국어를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구사하시는 40대 초반의 목사님으로서 약간의 목회경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기간 2014년 11월 30일까지

지원 서류 보내실 곳 및 지원 방법 E-Mail(camry2004@hanmail.net)

보내실 서류 설교 동영상 2-3편, 프로필 (출신 학교와 사역 경험에 대한 전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가족관계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고백 등), 추천서(우편으로)

후보자가 3-4명 정도로 선발 되면 학위증 사본과 교단 소속 증명서를 제출 합니다(hard copy, 우편으로)

말씀의 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7850 Edgewater Dr. Oakland CA 94621

giveroflife.org

전도사 초빙 (2명)

자격요건

1. 전도에 투철한 사명이 있으신 분
2. 신학교 2년이상 재학
3. 전도사 자격증 소유자
4. 집사로서 5년 정도 봉사하신 분 (신학교 입학 보조와 자격증 취득 도와드리)

제출서류

1. 자기소개서
2. 재학증명서, 전도사 자격증 집사임명장

서류제출처

전화 하신 후 직접 내교 상담요망  
시간: 10am to 4pm  
교회 301 S.kingsLey DR #201  
Los Angeles CA 90020  
전화 213)245-4090 215)798-9919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55)



정 성 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 성령의 신학자 카이퍼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로 부르듯이 카이퍼도 성령의 신학자이다. 흔히 아브라함 카이퍼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의 일반은총론을 너무 강조하고, 정치가로서의 활동을 지나치게 무게를 둬서 성령의 신학자로서의 카이퍼를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실은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 이후 300년 만에 나타난 위대한 성령의 신학자였다. 물론 그 중간에 존 오웬(John Owen)의 방대한 책 '성령에 대한 강좌'(Discourse Concerning the Holy Spirit)가 있었으나 이 책은 전형적인 교리신학 체계로 되어있다. 그러나 카이퍼는 성령론에 대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필자는 카이퍼의 명저 '성령의 사역'(Het Werk van den Heiligen Geest)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되어 그의 책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려고 한다. 900여 페이지의 방대한 이 책은 카이퍼의 어느 책보다 신학적이면서도 대중적이고 개혁주의 신학수립의 결정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책이 100여 년 전 영어로 번역됨으로써,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 특히 성령론의 결정적 저서가 되어 영미 신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카이퍼는 칼빈주의 사상과 칼빈 사상의 부흥가이다. 카이퍼의 성령론을 말하기 전에 칼빈의 성령론을 먼저 생각해볼까. 마치 중세대의 로마가톨릭시대에 철저히 성경 진리가 왜곡되고 은총의 종교가 의

의 진리를 세우고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특히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흐름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으로 조직 되었다고 할 수 있다. B. B. 윌필드는 칼빈을 가르쳐서 '성령의 신학자'(de theoloog van den Heiligen Geest)라고 할 만하다고 했다.

칼빈이 성령에 대한 언급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우선 칼빈은 성령을 말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해되

야 할 것을 말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유익과 만족을 얻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경청해야 한다" 또는 "성령은 말씀과 결합된다. 왜냐하면 성령의 효력이 없이는 복음 전파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칼빈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에서 말씀과 성령은 더불어 역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했다. 칼빈의 말을 몇 구절 인용하면 이렇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였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반복의 근원이시다. 그러

나 그의 모든 축복과 더불어 그리스도 자신은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 믿음을 일으키는 분은 성령이시다"라고 했다. 그리고 칼빈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몇 구절을 더 인용해보면 "믿음에는 성령의 두 가지 작용이 있다. 먼저는 마음을 조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결코 지지치 않게 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다"라고 했다.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령은 신자들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과 같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은사와 은혜에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 구속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했다. 또한 삼위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다.

B. B. 윌필드는 말하기를 "성령의 사역 교리는 요한 칼빈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로 전수되었다. 이런 교리는 칼빈 자신이 발명한 것은 아니다. 성령의 사역교리는 성경 각권에 널리 퍼져있으며, 명백하고 충분한 언급이 되어 이를

수 없다. 카이퍼의 성령의 사역이란 책은 화란 개혁교회에서 일어난 위대한 신앙운동의 본 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카이퍼의 '성령의 사역'은 혹자는 학문적 성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윌필드는 "확실히 학문적 정확성을 지녔으며, 어떤 기왕의 기독교 서적에 학문적 형태를 지닌 것보다 확실히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 책은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며, 또 이 책은 새롭고 신성한 언어로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뿐만 아니라 카이퍼의 이 책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영속적이고 행복스런 안정감을 준다.

칼빈 이후 300년 만에 19세기 현대주의, 자유주의 사상으로 교회가 세속화 되고 황폐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카이퍼를 일으켜 세우셨다. 칼빈 이후 존 오웬이 성령론을 파내기는 했어도 카이퍼의 성령의 사역은 유기적이고 통일적이고 풍부하고 실제적으로 쓰인 것이다. 거기다 대중적이며 시사적인 것까지 결합됨으로서 칼빈과 존 오웬 이래 이런 분야에 유일한 저서가 되었다. B. B. 윌필드는 칼빈 이후 위대한 개혁주의자 카이퍼의 저서를 축복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내게 오소서, 창조주 성령님이여! 위로자 성령이시여! 당신은 신이시며, 하늘의 진노자! 당신은 선물이요 당신은 수여자도!" ("Veni Creator Spiritus Spiritus Co-creator Tu Deus, tu datus Coelitus Tu donum, tu donator")

(다음호에 계속)

## 칼빈의 성령론= "구원에서 말씀과 성령은 더불어 역사한다" "성령의 사역" 저서 통해 카이퍼에게 와서 재건되고 부활돼

읽는 자들에게 안심을 갖게 한다. ...이 교리를 적절히 표현하고 조직화한 맨 처음 사람이 바로 칼빈이었다. 그런 교리는 칼빈을 통해서, 칼빈으로부터 그리스도 교회의 확실한 소유가 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윌필드는 칼빈의 성령론을 카이퍼가 계승했다는 의미로 "현대의 개혁파의 유산을 위해 투쟁하는 화란의 영적 후계자들에게 계승되었다"고 했다.

16세기 칼빈의 성령론이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와서 재건되고 부활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 칼럼 음악목회 (39)

### 또 하나의 지휘자 (10)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뿌린 씨앗들이 흙냄새를 가득 품고 연록으로 속살을 드러내던 봄을 지나 농부의 진땀을 마시고 태양과 싸우며 진흙의 피부를 자랑하던 여름을 달려 제법 어른스럽게 차려 입은 추위의 옷을 입고 양팔이 처지도록 많은 자식들을 안고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만추의 계절에 오곡백과가 풍성한 그들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절입니다. 그런 계절에 어울리게 한 해 동안 잘 준비해온 각 교회 찬양대 또는 합창단들이 결실을 자랑하는 음악이 풍성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남가주에는 100개가 넘는

합창단들이 있습니다. 어린이합창단, 청소년찬양동단, 청소년가무단 등 그리고 여러 남성합창단과 여성합창단, 그리고 거의 10개나 되는 미션스쿨 동문합창단과 각 대학마다 동문 대학합창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로 구성된 합창단들과 장로성가단, 권사성가단 등 그리고 여러 선교합창단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합창단들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씩은 발표회를 갖고 있어 아주 합창음악의 풍년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교회찬양대들까지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많은 연주를 갖습니다. 더불어 교회찬양대나 합

창단들도 타악기나 관악기 등 다양한 악기들이나 오케스트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휘자들이 찬양대나 합창단을 피아노 반주만으로 연주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 악기나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경우 제대로 지휘를 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전 체계적으로 통솔이 되지 않고 특히 시작하는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음악에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또는 미사(Mass) 곡을 지휘할 경우 많은 부분이 레치타티보로 되어있는데 독창자의 레치타티보에 오케스트라 반주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합창지휘자들이 관현악 지휘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평소 습관이 피아노 반주자에게 의존하여 연습도 하고 연주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휘자는 조금 부족해도 반주자가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 지휘자가 틀리게 지휘할지라도 반주자가 알아서 합창을 끌고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관현악은 피아노 반주자처럼 혼자서 반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때로는 수십 명으로 구성된 챔버오케스트라로부터 칠합십 명 이상이 되는 대형오케스트라까지 많은 연주자가 동시에 앙상블을 맞추어 가야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휘자의 명료한 지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것은 찬양대나 합창단이 관현악과 협연할 경우 리허설에서는 그렇게 죽을 쭈다가 정작 연주시간에는 지휘자와는 상관없이 제법 음악을 맞추어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관현악을 잘 모르는 분들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있어서는 지휘자 못지않게 중요한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콘서트 마스터(Concert Master)입니다. 모든 연주회에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두 나와 자리를 앉고 나면 악장이 마지막오 나와 튜닝을 지시하고 연주회 준비를 마친 다음 지휘자가 나오지요. 바로 그 악장이 Concert Master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가지 못하면 Concert Master가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지휘자의 능력이 한계를 드러내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휘자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장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한 번 기회가 있다면 연주시에 악장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단원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관찰해보기 바랍니다. 악장은 자기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의 활로 지휘를 하다가 때로는 자기 연주가 바쁠 때는 머리로 박자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면 여성 악장인 경우 머리 뒤로 묶은 머

리채가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 또 하나의 지휘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삼중주나 중주 또는 실내악에서는 지휘자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와 같은 앙상블에서도 악장이 음악을 이끌어갑니다. 그만큼 또 하나의 지휘자인 악장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지휘자가 음악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이는 지휘자로서는 죽음입니다.

물론 자꾸 하다보면 더 좋아지겠지만 그와 같은 연주를 참관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악을 전공했다거나 오케스트라를 공부한 적이 없는 지휘자라면 굳이 어려운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고집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반주 찬양도 아름다운 곡이 많고 피아노나 오르간 반주로 쓰여진 감동적인 찬양곡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찬양대나 합창단의 아름다운 톤과 음악을 표현하기에는 단순한 반주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 한명철 목사의 저서

###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 기도기도기도

본서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을 모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의 작은 불씨를 모아 큰 불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할 것이다.

한명철 지음 / 336면 / 12,000원

### 숨겨진 신화

이 책은 <<인봉민 책>> <<개봉민 책>> 요한계시록 주석을 요약해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게 작성한 것으로 계시록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메시지가 확연히 드러나고 잘 활용될 것이다.

한명철 지음 / 304면 / 12,000원

### 봉괴의 신호음이 들릴 때

고난의 현실을 피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며 헤쳐 나온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그들의 실패와 재기를 통해 고난 극복의 지혜와 기술을 담았다.

한명철 지음 / 296면 / 13,000원

### 성경의 압축 파일을 풀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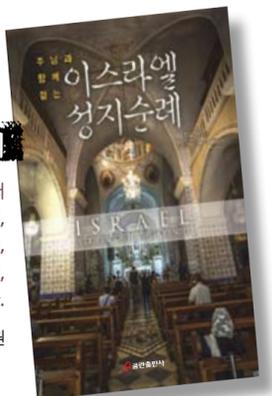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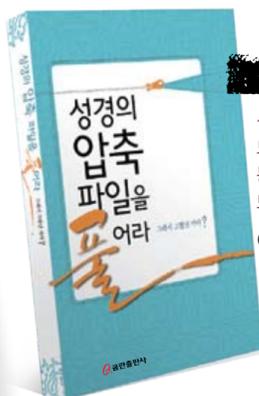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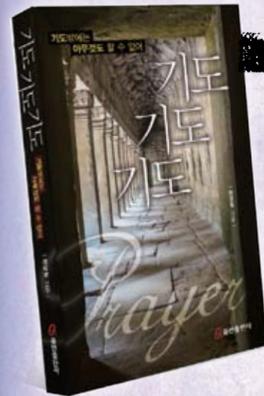
성경은 일일이 다 배경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압축 파일과도 같다. 성경의 배경을 알면 그 압축 파일을 풀 수 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성경의 배경을 알게 되고 또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진희 지음 / 344면 / 13,000원

### 이스라엘 성지순례

주님과 함께 걷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스라엘 구약 역사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배경을 살펴보고 나사렛, 예인케렘, 베들레헴,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과 공생애 사역지, 예루살렘, 기타 이스라엘 성지를 지도와 사진을 곁들였는데, 전문 사진작가 Lisa의 손길로 현장감을 더했다.

탁은숙 지음 / 328면 / 20,000원



인봉민 책 / 개봉민 책  
요한계시록 주석  
한명철 지음 / 1-11장 / 672면 / 25,000원  
12-22장 / 584면 / 23,000원



진화를 사실로 믿고 있는 과학자들은 침팬지와 사람이 600만 년 전에 살고 있었던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각각 진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진화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또, 침팬지와 사람은 고릴라가 갈라져 나간 후에 같은 조상에서 진화되었기 때문에 침팬지의 유전정보는 고릴라보다 사람과 더 유사하여 98.5% 혹은 96%나 똑같은 말을 어렵지 않게 듣는다.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왜 고릴라와 침팬지는 24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진화론자들은 24쌍의 염색체를 가진 공통조상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작은 염색체 2개가 1개로 융합되어 23쌍의 염색체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화론적인 염색체 융합모델(그림)에 의하면, 두 개의 작은 염색체의 머리 부분이 서로 달라붙어 길이가 긴 사람의 2번 염색체가 되었으므로 융합된 지점을 조사해보면 그

## 창조과학 칼럼 (211)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다 그의 손에 (20) 하나님의 형상, 침팬지와 사람의 염색체

개의 유전자는 가상의 융합된 염색체 지역의 양쪽에 걸쳐서 존재한다. 그러나 두 염색체가 붙어서 우연히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이 DNA 증거도 사람의 진화가 사실일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

셋째, 중심체(세포 분열시 염색체 이 증거도 사람, 침팬지, 고릴라가 같은 공통조상 유인원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반대 증거가 될 뿐이다.

넷째, 융합되었다는 원래 두 염색체의 끝 부분은 융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염기 순서를 가지고 있다. 잘못된 염색

까지 사람 염색체와 침팬지 염색체의 유전정보가 정확하게 1:1로 비교되지 않았다(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염색체인 Y 염색체를 서로 비교했을 때 침팬지와 사람은 30% 이상 차이가 있었다(Hughes, J.F. et al., Chimpanzee and human Y chromosomes are remarkably divergent in structure and gene content, Nature 463:536-539, 2010). 침팬지 염색체 2A와 2B를 사람 염색체 2번과 비교할 때도 상당한 차이가 발견될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세속 과학자들이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정보가 "99.4%가 동일하다", "98%가 동일하다", 혹은 "95%가 동일하다"는 등 진화론을 광고해오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 앞에서 언급한 데이터들은 진화론에 불리한 데이터는 감추고 유리한 데이터만 그 숫자들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데이터들을 정직하게 비교하면 약 70%의 동일성만을 가지

##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 극한 고난을 통과하며 세워지는 사명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비웃더라”(출11:3).

두 가지 지도자의 타입이 있습니다. 약한 지도자는 자신의 영광에 집착하여 급급하는 자입니다. 집착은 무서운 중독입니다. 욕심이 집착의 수준으로 들어오면 내 것을 지키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안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고통하는 데도, 신하들이 아무리 충언을 해도 전혀 현장감이 없습니다. 누울 자리도 없는데 막강하게 험기충만한 고집을 부립니다. 백성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선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 헌신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그 모든 것도, 그 귀중한 자존심도 과감히 버립니다.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놓아야 하는지 상황 판단을 예리하게 합니다. 저들은 겸손히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줄도 알고 사람을 의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해와 장애를 뛰어 넘고 백성을 위해 헌신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을 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자로 세워 가십니다. 떨고 나와야 할 애굽의 바로의 저항이 대단합니다. 또한 데리고 나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이 모세와 전혀 다릅니다. 온 사방이 자기 실리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의 강박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깊이 밀어 넣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한발 양보를 모르는 완악함이 갈수록 팽팽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함을 경고하시며 계속 밀어 넣으십니다. 너무나 힘이 진하여 지쳐 떨어져 힘든 것을 호소하긴 해도 사명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기력도 없어도 오직 어떻게 갈 것인지 오직 주께 죽기로 나아가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 이토록 완악하고 미련한 바로를 통해 참된 목회자상을 굳혀 주십니다.

모세의 이 우직함을 따라감이 진정한 사명자의 길입니다. 온 사방을 둘러봐도 모든 것이 가로막혀 나갈 길 없어도 주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없는 것은 버리고 있는 것만 붙들면 성공적인 삶입니다. 이기주의에 찌든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출애굽의 사명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장으로 인비에 새겨진 이 확실한 사명을 들고 땀과 눈물의 핏방, 열사, 천대 따위는 오히려 우리의 자랑스런 면류관입니다. 상한 목자 주님의 심정이 내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려면 이는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몰아내 버려야 할 내 안에 속속들이 스며있는 이기주의의 독소입니다. 이 중에 제일의 관문인 자기중심의 자의식이기에 과감히 수술의 메스를 드시는 방법을 쓰시는 주님의 마음! 통과한 후에 생겨질 당신의 모습을 닮은 것을 보시며 기쁨으로 과감히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제앙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같이 하여 함께 되어”(히11:28) 모세에게는 주님과 신의 교감이 깊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을 잊고 백성만을 위하는 사명이 모세의 마음에 잘 박힌 못같이 꽂힙니다. 더 이상 힘들어도 못하겠다 빠지지 않습니다. 순간 순간 덮쳐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한발 한발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완전히 세워놓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험난한 현장에서 그분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 믿음위에 세워져가는 만큼 지도자의 믿음의 용량을 늘리시며 세워 가십니다. 천재로 태어나도 현장 속에서 깎여내지 못하면 사장되고 깎여내어 거듭거듭 쓰다보면 내 안에 천재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나의 힘이 됩니다. 영원히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방패요, 싸워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의 불평 속에 같이 휩쓸리지 않도록 당신의 사명자들을 은혜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세상이 오늘 끝나는 긴장감 속에서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며 주님사랑, 주님의 백성사랑을 굳게 잡고 주어진 현장에서 사명을 완수하도록 중심을 견고하게 붙들여 주소서.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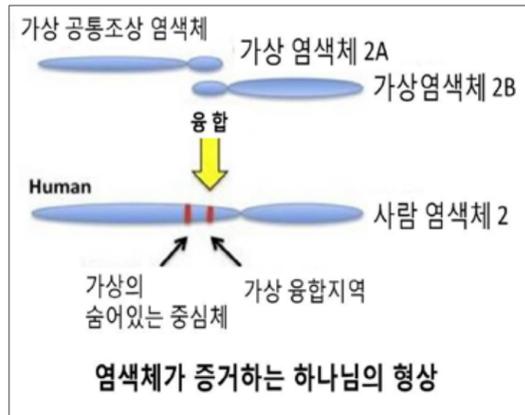
## 고릴라보다 1쌍 작은 사람 염색체... “진화과정서 융합” 주장 가상 융합지역에서 (TTAGGG)n 염기 순서 찾아볼 수 없어

림에서처럼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융합모델은 사실 일 수 없는 다음 네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and, The chromosome 2 fusion model of human evolution—part 1: re-evaluating the evidence, (2):106-110, 2011).

첫째, 융합된 지역에는 (TTAGGG)n의 염기 순서가 수백 번씩 반복되어 있어야 하는데 (TTAGGG)n 수가 너무나 적다. 또, 두 염색체가 머리끼리 융합이 되었다면 융합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대에는 (TTAGGG)n에 상보적인(CCCTAA)n의 염기 순서가 또 수백 번씩 반복적으로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가상의 융합 지역에서는 (TTAGGG)n의 염기 순서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두 염색체가 융합되었을 것이라 주장한 사람의 진화를 설명하려는 시도일 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둘째, 이 가상 융합 지역에는 24개의 가능 유전자와 16개의 유사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조상과 유사할 것으로 여겨지는 침팬지의 작은 두 염색체의 융합 지역에는 그 유전자들이 없다. 더욱이 그 중에 두



염색체를 끌어당기는 로프인 방추사가 붙는 지점으로 그림의 잘록한 부분)의 위치와 염기 서열을 설명할 수 없다. 예상되는 중심체의 염기서열(alphoid DNA)에는 중심체의 특징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정보는 중심체가 아닌 지역에서도 수백 번 발견된다. 공통조상의 염색체 2A와 2B가 융합되어 사람의 2번 염색체가 되었다면 발견되어야 할 위치에 중심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두 개의 중심체들 중에 하나가 갑자기 돌연변이 되어 기능을 잃어버려야 한다. 두 염색체가 붙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

체 융합이 일어나면 세포가 죽게 되므로 그런 개체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상과 같은 증거들은 사람과 침팬지의 공통조상이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염색체가 융합된 것이 사람의 2번 염색체란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진화를 사실로 믿고 어떻게 든 설명을 해보려는 허튼 노력일 뿐이다.

사람의 2번 염색체에 들어 있는 정보가 침팬지 염색체 2A와 2B에 들어 있는 정보와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아직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Jeffrey P. Tomkins, Comprehensive Analysis of Chimpanzee and Human Chromosomes Reveals Average DNA Similarity of 70%, Answers Research Journal 6:63-69, 2013).

전체적인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다. 과학자들은 공통조상이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작은 염색체들이 융합되어 한 개로 된 것을 관찰할 적이 없고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유전정보 외에도 화학 증거를 보거나 현재 침팬지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은 성경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임에 틀림없다. 놀랍게도 침팬지의 유전정보가 고릴라보다는 사람에 더 가깝다. 침팬지와 사람이 형제라면 고릴라는 사촌이라는 DNA 분석결과는 진화가 사실이 아님을 더욱 확신하게 해준다. 염색체들은 창조 6일째 침팬지 종류 따로 그리고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로 각각 창조된 것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메일: mailforwchoi@gmail.com

# 고 최민 중국선교사 추모예배

미주 지역의 중국 조선족 목회자 제1호로 부름받아 크리스천 위클리 편집국장을 역임하고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 하시던 최민(본명 최학철) 목사님이 지난 10월 15일 서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별세하셨습니다. 최 목사님을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추모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오셔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최 목사님이 남겨놓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함께 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4년 11월 7일 오후 6시

장소 남가주 명성교회(담임 정해진 목사)

1543 W. Olympic Bl. #500 Los Angeles, CA 90015  
(Olympic과 Union 코너, 구 독도스시바 건물)  
Tel.(213)445-9182 \* 파킹은 5시 30분부터 무료입니다

설교: 정해진 목사

\*화환은 사절합니다  
\*추모예배 후 한미정 식당이 제공하는 저녁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미정 주소: 4100 W. Pico Bl #12  
L.A., CA 90019 (전화) 323-735-9200

주최: GMCC 선교회(대표 현병훈 장로), 세계 기독교인론험협회(회장 박재호 목사), 남가주 명성교회(담임 정해진 목사)

#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 제 10회 G.I.M 글로벌국제선교대회 성료

글로벌 인터내셔널 미션(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이하 GIM 글로벌국제선교 교회연합)이 주최하는 제 10회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대회장: 정운명 목사, 월넛크릭GIM교회 담임)가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사43:19) 주제로 지난 1, 2일, 북가주의 오크랜드에 위치한 Burmese Mission Baptist Church(담임 Lone Lazum 목사)에서 열려 30여 민족 대표와 다민족 성도 500여명이 모여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소원했다.



글로벌국제선교대회에서 합심 릴레이기도를 하고 있다.

미국 주류교회를 비롯 한국, 중국, 이란, 라티노, 투마니아, 베트남, 에티오피아, 필리핀, 인도, 아프리카, 아메리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30여 민족대표와 많은 다민족 성도들의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간구하는 체인플레이(합심릴레이 기도)에 이어 8개국 선교보고, 메시지, 패널, 찬양 페스티벌이 진행돼 미국내 이반젤리컬교회의 여러 민족들과의 연합과 협력을 통한 선교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대회기간에 한인교회 측에서는 산호세 교회연합으로 구성된 실리콘밸리선교연합창단의 찬양과 아프리카아메리칸 중심이 된 여성합창단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미션부스에는 국제기드온협회를 비롯, 이란 방송선교, G.I.M, OMF, 한국에서 참가한 기독교대안학교인 Global 선진학교, Chinese 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 Student Fellowship, World Christian Restaurant Ministries, The Great Commission 등 선교단체들이 참여했다.

대회장인 정운명 목사(월넛크릭 지아이엘교회)는 “금년에는 특히 다민족 1세와 2세대들이 연합해 GIM 주최의 3개 대회인 올네이션스연합기도컨퍼런스, 글로벌다민족콘서트,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대회

를 갖게 됐다”면서 “미국내 차세대 선교도 함께 인식하며 1세와 2세가 만남과 협력의 장이 돼 미국 내 다민족 교단과 세대들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전하고, 이번 대회를 통해 지상명령(마28:19-20)의 해답을 주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다민족 연합선교의 장이 됐음을 발견케 됐다”고 말했다.

대회는 2015년도 9월 11회 글로벌 국제대회에서 다시 만나 교회연합을 통한 선교사명을 함께 할 것을 기약하고 마쳤다.

(정리: 유원정 기자)



## 크리스천 법률칼럼

지니 정 변호사



### I-601A(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 사면 신청

불법체류자와 달리 밀입국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된 601A로 인해 이 같은 불편함을 조금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601 사면 신청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새 601A 사면 신청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사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국에 장기 체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기존 601사면 신청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이민국의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601A 사면 신청 절차는 먼저 미국 내에서 가족이민 청

원인 I-130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이민비자 신청을 하고 본국 미 대사관 인터뷰 날짜를 받은 뒤, 출국해서 인터뷰를 하고 받은 이민비자로 미국 입국하시면 됩니다.

601A 사면 승인 요건은 밀입국자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할 경우 밀입국자의 미국 시민권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이 초래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이민국에서 제시한 예들을 살펴보고 해결하려는 이민국의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요인(Special

Factors)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인으로 증명 된다고보다는 신청인의 전체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I-601A의 승인률이 59%에 그치고 있고, 밀입국자의 행사기록 및 이민법 위반기록이 있으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인과 가족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법률논고를 작성해 이 사면안을 통해 많은 해당 밀입국자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213)427-9750



밸리지역 족구대회 참가자들



예성 2014 목회자 친선 체육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기부 뉴욕지부 제 4대 대표회장 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우승-밸리, 준우승-ANC온누리교회

### 밸리지역 족구대회 및 PK대회 성료

밸리지역교회협의회(회장 서종운 목사) 주최 족구대회 및 PK대회가 지난달 25일 약 10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대회에 앞서 열린 예배는 서종운 목사(새생명중앙교회 담임)가 대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본문으로 “함께 하는 밸리 체육대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밸리 지역은 은혜 받는 것도 함께, 축복받는 것도 함께, 선교하는 것도 함께, 체육대회도 함께하여 이 지역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만들고 부흥시키는 일에 힘쓰자”고 말했다.

족구대회는 밸리 팀이 우승을, 준우승은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수 목사)가 했으며 PK대회는 한마음새연약교회(김정원 목사)가 우승했다.

밸리교협은 앞으로 밸리 지역에 이런 연합행사를 통해 교회가 단합하며 또 아름답게 성장하고 더욱더 지역 사회에서 친숙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을 다짐하며, 내년 대회는 더 잘 준비해 성대하게 열 것을 다짐했다.

(기사제공: 밸리교협)



재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남가주 총동문회 체육대회 및 정기총회가 열렸다.

## 남가주총동문회 회장선거 싸고 불화

### 재미총신대신대원, 친선체육대회 및 정기총회

재미총신대학신학대학원 남가주총동문회(회장 석태운 목사) 체육대회가 지난달 21일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 앞 마스후카이파크에서 열렸다. 체육대회는 지윤성 목사 사회, 광덕근 목사 기도 후 문석호 목사가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요삼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시영 목사의 환영사 후 강영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체육대회가 진행됐다.

종목은 족구, 배구, 발야구, 족다리기, 그리고 PK차기. 올해는 홀수 기수가 3대2로 승리했다. 금번 체육대회는 뉴욕에서 온 미주총동문회(회장 문석호 목사) 임원들이 친선 사절단으로 동참해 친교를 나눴다.

정기총회는 점심식사 후 성화장로교회(담임 강영석 목사)에서 열

려 먼저 예배를 드렸다. 예제는 윤태근 목사 사회로, 기도 이철훈 목사, 성경봉독 김원락 목사에 이어 이시영 목사(수석부회장)가 “항상 기도하라”(눅18:1-8)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동부와 서부의 감사패 교환이 있었다. 서종운 총무 광고와 정고영 목사의 축도 후 회의에 들어갔다.

이시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회장선거는 자문위원회에서 회장 김해성 목사를 지명했으나 소장파 동문들이 부결시켰다. 그러나 투표 없이 강행한 결과 젊은 동문들이 불법임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2014년 재미총신동문회는 유래 없는 불화의 모습을 보였다. (기사제공: 재미총신대학신학대학원 남가주총동문회)

## 목회현장 피로 풀고 힐링...

### 예성미주총회 미서부지방회 목회자체육대회

예성미주총회 미국서부지방회는 지난 1일 Ralph B Clark Regional Park에서 “2014 목회자 친선 체육대회”를 가졌다. 미 서부지방회가 주관하고 예성미주총회와 성결대학교 미 서부지역동문회 후원으로 열린 행사는 총 3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 예배는 강양구 목사(지방회 부회장) 사회로 최완호 목사(증경 지방회장)의 기도, 김제임스 목사(지방회장)가 창세기 1장 27-2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윤수 목사(지방회 서기)의 광고에 이어 이윤수 목사(성결대학교 미 서부지역동문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가진 푸짐한 BBQ 파티는 목회자 및 가족들에게 목회현장

의 피로를 풀고 힐링 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목회자 및 동문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장으로 이어졌다.

식사에 이어 시작된 2부 체육대회는 손민호 목사(지방회 회계)의 진행으로 동부감찰회와 서부감찰회 그리고 동문회 3팀으로 나누어 단체 줄넘기, 꼬리잡기, 축구공 이어달리기, 풍선 터뜨리기, 피구와 족구 등의 종목으로 진행됐다.

3부는 시상식 및 폐회식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명환 목사는 “모처럼 야외로 나와 지방회 목회자들과 동문들이 함께 모여 함께 뛰고 함께 먹고 함께 땀을 흘리는 시간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제공: 미국서부지방회)



아가페열방찬양제에서 연주하고 있다

## 제5회 아가페열방찬양제 성료

제5회 아가페열방찬양제가 지난 2일 오후 5시 아가페장로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렸다.

찬양제는 김남수 목사의 인사 및 기도도 시작돼 20명의 대형밴드팀인 엘림크리스찬밴드의 연주, B4A, 뉴저지밀알선교단 이원석 군의 간증과 찬양, 제이슨장 목사의 말씀선포가 이어졌다.

이어서 갓스이미지, 러커스대밴드스미니스트리팀, 국악찬양팀 세븐해븐, 오페라가수 겸 찬양사역자 지민리, 갈보리교회 중창단, 할렘지역 흑인찬양그룹 베아뮤직팀, 그레이스커뮤니티체를 찬양밴드

팀 등의 공연인 이어졌으며 김남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350여명 참석자의 50% 이상이 2, 30대 청년들로 지역주민들도 다수 참여했다.

매년 11월 첫째 주에 열리는 아가페열방찬양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종, 문화를 떠나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한인교회나 타인종 교회 간에 교류를 갖고 협력사역의 기반을 만들며 불신자 전도를 위해 시작된 찬양제로 뉴저지 최대 규모의 찬양제다.

(기사제공: 뉴저지아가페장로교회)

## 한기부 뉴욕지부 제 4대 대표회장 취임식

### 정순원 목사, “회개운동으로 뉴욕에 부흥을!”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한기부) 뉴욕지부 제 4대 대표회장 취임식이 지난 30일 저녁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정순원 목사(빛과소금교회 담임)가 4대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취임예배는 부회장 주효식 목사 사회로 기도 이만호 목사, 설교 최영식 목사(한기부 대표회장), 이임사, 취임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 뮤지컬 ‘히스라이프’의 예수 역 랜디 브룩스의 특송이 있었다.

최영식 목사는 “아버지의 마음”(눅15:11-2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진리 안에서 연합되며 생명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며,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 과거를 묻지 않는다, 둘째 계산하지 않는다, 셋째 회복시켜주는 마음이다. 율법에 사로잡힌 만인들이 되지 말고 회개하면 받아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한기부 뉴욕지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명 전임회장은 “1년 5개월 전 취임하면서 뉴욕을 발판 삼아 부흥의 전진기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신

임 회장이 잘 이끌어나가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행통하기를 바란다”고 이임사를 했다.

정순원 신임회장은 “새벽마다 교회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먼저 회개했다. 부흥의 시간을 맞고 있는 이 시기에 한기부 뉴욕지부 회장직을 제안 받고 수락했다.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뉴욕에 회개운동이 일어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뉴욕이 되기를 바란다”고 취임인사를 했다.

축사는 박희소 목사, 황동익 목사, 이재득 목사가 했으며 유진웅 교수의 색소폰 연주가 있었다.

한기부 증경회장 송일현 목사는 “하나님이 승낙하시지 않았으면 뉴욕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뉴욕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면 한국에도 영항이 미친다”며, “7년 전부터 한기부가 세계로 사역을 확장해 필리핀 교도소에 4개 교회를 세우고 아르헨티나에 학교를 세우는 등 세계 선교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취임예배는 김경열 목사의 광고 후 황경일 목사 축도로 마쳤으며 부흥의 전진기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신

(유원정 기자)



살롯장로교회 야외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기념촬영했다

## 살롯장로교회 가을 야외예배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지난 19일 가을 야외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에는 음식을 나누며 친교를 나눴다. 특히 친교 때는 한인회장 전승현 집사의 사회로 동

심으로 돌아가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교제를 즐겼다. 한편 동 교회는 10월 31일 최복규 목사(서울 대영교회 담임)를 강사로 가을부흥회를 갖는다.

### 뉴욕청소년센터 새 대표에 송병기 목사 제 20회 이사회 정기총회, 건물 매각 이전 등 재정난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 이사회 제20회 정기총회가 지난 28일 플라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려 신임 대표에 송병기 목사가 선출됐다. 대표 최장섭 목사와 이사장 이수일 박사가 임기를 마치고 감사패를 받았다.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이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청소년센터는 우드사이드 건물 매각 후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이 없어서 재정난에 처해 매월 2천여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교협 건물 이전으로 청소년을 수송할 댄 운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회기 재정은 수입 118,210달러, 지출 119,171달러로 961달러가 적자였지만 이 결산액은 12개월이 아니라 교협과 결산기간을 맞추기 위해 이번 회계기간만 특별히 13개월 결산이다. 그리고 수입 중 은행이자와 기타를 뺀 순수 수입은 81,690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2015년 예산은 지난해(118,210달러)와 비슷한 124,400달러지만 실제로는 많이 상선된 액수다. 지난 2014 회기에는 교회 후원금 28,650달러, 기관과 단체 후원금 16,298달러, 개인과 이사회 후원금 11,220달러 등 56,168달러였으나 2015년 예산은 8만달러로 세웠다. 청소년센터가 사역에 힘을 받기 위해 교회와 교계단체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공재규 사무총장은 프로그램 및 행사보고를 통해 △성탄절 판드레이징 △부모교실(뉴욕, 뉴저지, 토요 영어) △감사와 후원의 밤 △정

소년할렐루야대회 △학원사역 △상담 등의 사역을 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9월 뉴욕장로교회에서 2일간 사무엘 최 목사를 강사로 열린 할렐루야대회는 예년과 달리 둘째날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등 연인원 1,550명이 참가했으며, 강사의 말씀이 좋았다는 평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또 농구대회는 두 차례 진행을 추진했으나 날씨관계로 취소됐으며, 뉴저지 부모교실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학원사역은 4명의 사역자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만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친구들과 전도할 수 있도록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재규 사무총장은 새 프로젝트로 2015년 청소년 예배인도자 양성을 위한 워싱턴 캠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회부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한 한재홍 목사는 "어떻게 해야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있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해외선교도 중요하지만 내 집안 식구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 제 43회기 정부회장 후보등록 발표 11월 24일 뉴욕목사회 정기총회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황동익 목사)가 오는 24일 제 43회기 정기총회를 앞두고 정·부회장 임후보 등록을 공고했다.

임후보자 자격은 △목사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뉴욕지역에서 담임목사 경력 만 5년 이상 △목사회에서 임원 혹은 실행위원을 역임 △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법정징고형 이상 혹은 재판에 계류 중)가 없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후보등록원서 1통 △소속교회 추천서 1통 또는 증명회장 추천서 1통(독립교회 경우 증명회장 3인 이상 추천) △회원 추천서 1통(5인 이상) △증경회장 추천서 1통(2인 이상) △이력서(사진부착) △임후보소견서 1통 △목사안수증명서 1통이며 등록은 11월 15일(토) 오후 5시까지 목사회 특별선거관리위원회로 해야 한다.



뉴욕목사회 체육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 청명한 가을날...뉴욕목사회 체육대회

뉴욕목사회(회장 황동익 목사) 42회기 마지막 행사인 체육대회가 지난 30일 알리폰드 파크에서 열렸다. 뉴욕교협 총회 이전에 열렸던 예년과 달리 교협 총회를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모인 목회자들은 청명한 가을 날 휴식과 더불어 경기를 하며 연합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에 앞서 드린 경건예배는 총무 유상열 목사 인도로 황동익 목사가 기도 후 말씀을 전하고 안창의 목사가 축도했다. 황동익 목사는 유대서 1장 5절을 본문으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전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새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다음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며, "오래 큰 사명을 받

고 은혜 가운데 새 역사를 이뤄나가는 목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정신 차려 목회 안하면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그 뜻대로 충성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는 이창남 목사의 인도로 배구시합을 벌여 승리한 팀들에게는 참가품과 올리브오일 상품이 수여됐다. 또 참석자 전원에게도 목사회가 마련한 선물이 전달됐다. 경기 후에는 오찬을 준비한 부회장 이만호 목사가 기도한 후 친교를 나눴다. 한편 이날 지난 27일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된 이재덕 교협회장이 참석했으며, 뉴욕을 방문 중인 한국기독교부흥사협의회 신임회장이 참석해 금일봉을 전달하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전도협회가 주최한 연합전도부흥성회에서 강사 정희량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 뉴욕전도협, 연합전도부흥성회 및 목회자세미나

뉴욕전도협회의(회장 허윤준 목사)가 주최한 연합전도부흥성회와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3일에는 목회자세미나가 개최됐다. 뉴욕교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는 허윤준 목사 사회로 기도 김영환 목사, 말씀 정희량 목사(광정침례교회 담임), 광고 안승백 목사, 축도 신현택 목사, 만찬기도 허결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윤준 목사는 "이번 전도집회를 통해 뉴욕에 부흥의 새역사를 쓰기를 바란다"며 강사를 소개했다. "목양자의 두 가지 프레임"이라는 제목으로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피라!"라는 내용을 전했다. 정 목사는 "목회자는 두 가지 프레임 기도의 틀과 말씀의 틀로 하나님 앞에 영적 틀을 잘 세우라"고 말했다. 정희량 목사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이라며 "성전은 곧 나 라는 생각으로 조각목 마른 막대기 같은 나도 성령의 불을 붙여서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전의 3가지 중요한 기구 번제단/회개, 딱심/말씀, 분향단/기도로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고 회개(대하36:11-14), 말씀(대하36:15-16), 기도(삼상28:3-7)의 불을 일으켜 비용과 채움, 만남과 음성을 통해 전도운동으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자"고 말했다. 한편 정희량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주제로 31일과 1일, 2일 저녁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부흥집회에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창6:5-8), "한 영혼 때문에!"(요3:16-18), "내 잔이 넘치나이다!"(마22:32)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전도협회의 목회자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단비기독교TV 헌신예배를 마치고 임직원 이사진들이 기념촬영했다.

### ‘생명의 말씀’ 담은 복음방송 다짐 단비기독교TV 헌신예배 새 비전 소개

단비기독교TV(사장 정상교)가 지난 26일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헌신예배를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담은 복음방송이 될 것을 다짐했다. 정상교 사장은 단비TV 영상과 함

께 새로운 비전을 소개했다. 그는 "단비TV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한 것은 뉴욕과 뉴저지를 넘어 미전역에, 그리고 땅 끝까지 단비를 내리듯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

고 설명했다. 이사장 양춘길 목사는 "주님께서 발고광에 물을 넉넉히 대어 주시고, 그 이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짙은 복을 내려주시길 믿는다"고 기도한 후 "모든 사람들이 단비TV 전파를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단비로 복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저지교협 신임회장 이병준 목사(뉴저지행복교회)는 "믿음이 없이는"(히1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느님께서는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다"면서, "이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단비TV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방송이라는 믿

음으로 지원해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단비TV 부이사장 안명훈 목사(이폴라한인연합감리교회), 지난 15년간 기독교TV 재정을 이끌어왔던 강현석 장로(단비TV 부이사장) 등이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아플라교회성가대를 비롯해 뉴저지장로성가단, 필그림교회 중창단 등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합창으로 자리를 빛냈다. 대표기도는 필그림교회 김상수 장로가 했다. 단비TV는 지난 8월 26일 창립 15주년을 맞아 출범식과 아울러 회사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온라인 홈페이지(www.danbiTV.com)를 런칭, 복음방송과 함께 교계와 소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후 6:00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인도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5(월-토)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V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연구: 오후 10:00  
수요성경연구: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5:00(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9:00  
찬양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6:30  
(매주 1주, 3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창립기념경축: 오후 1:30  
주요성경연구: 오후 12:30  
주요성경연구: 오후 9:00  
수요인도예배: 오후 8:30  
수요인도예배: 오후 8:30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요성경연구: 오후 8:30  
금요성경연구: 오후 9: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동사목사: 박준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성경연구: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금요인도예배: 오후 8:45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장섭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인도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에사라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금요성경연구: 오후 5:00  
영양예배: 오후 1:00

**킨즈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킨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성경연구: 오후 8:30  
금요성경연구: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저녁 7:00  
수요예배: 저녁 9:00  
7/14종교개혁 기념: 아침 7:40  
영, 초, 중, 고등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요성경연구: 오후 2:00(영역)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1, 2, 3, 주 스터디 수업 포함)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연구: 오후 7:00  
주요성경연구: 오후 5:30(월-토)  
세례/기도회: 오후 6:0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요성경연구: 오후 12:30(영역)  
주요성경연구: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45



## 한교연 대표회장후보 양병희 목사

### 출마예고 정서영 목사 단일화 합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 양병희(영안장로교회) 목사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4대 대표회장 선거에 단일후보로 입후보하게 됐다. 예장백석 교단 차원에서 한교연 대표회장 후보로 확정된 양 목사와 한교연 대표회장 출마를 예고했던 예장합동개혁 정서영(총신중앙교회) 목사는 지난 3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호텔월드에서 만나 양 목사로 후보를 단일화 하는데 합의했다.

정 목사는 “한교연이 한국교회에서 연합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대표회장 선거가 과열되지 않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양 목사에게 후보직을 양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단 규모도 볼 때 이번에 예장백석에서 대표회장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면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한 양 목사가 한교연 대표회장에 당선되면 많은 일을 할 것으로 믿으며, 그만큼 능력도 된다고 보고 양 목사를 단일후보로 지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목사는 “한국교회와 예장백석 교단을 생각해 주시고 부족한 세계양보해 주신 정 목사께 감사 드리며 경의를 표한다”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답하는 길은 갈기갈기 찢긴 한국교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목사는 또 “한교연은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최고의 연합기관”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방향 설정이나 대안 모색보다 여러 행사가 쫓기는 듯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헌신하고, 이 사회와 정부를 향해 선지자적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나 동성애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한국교회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단의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좋은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교연은 소속교회의 숫자 등 교단의 규모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 ‘가군’과 ‘나·다군’에서 해마다 번갈아가며 대표회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예장통합과 백석, 합동개혁이 속해 있는 가군 차례다. 한교연 대표회장 후보 등록기간은 오는 11-12일이며 선거는 다음 달 2일 실시된다.

## 한복총 대표회장에 김대성 목사 선출

### 제25회 정기총회, 정인찬 목사 등 공동회장 6명 선임

한국기독교복음단체인총연합회(대표회장 김대성 목사, 이하 한복총)가 지난 3일 한국기독교성령센터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회장으로 김대성 목사(소명중앙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직전대표회장 장항희 목사의 사퇴로 진행된 2부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와 25대 신임원을 인준했다. 25

대 임원으로는 대표회장 김대성 목사와 공동회장 정인찬 목사 윤보환 목사 최명우 목사 임병재 목사 김영남 목사 손광호 목사, 사무총장 남준희 목사, 감사 박태남 목사 정균양 목사가 선임됐다.

각 위원회별 조직으로는 교회일치위원장 안준배 목사, 인권위원장 손광호 목사, 평화통일위원장 손문수 목사, 국제위원장 정균양 목사,

사회위원장 소강석 목사, 선교위원장 권경환 목사, 포럼위원장 남준희 목사, 신학위원장 고세진 목사, 문화예술위원장 박찬구 장로, 교회부흥위원장 김용덕 목사가 선임됐다.

한복총의 25회기 가맹단체는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정인찬 목사), 한국교회희망창조연합(이사장 권태진 목사), 2017 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세계한민족복음화협의회(대표회장 노희석 목사), 기독교문화예술원(총재 김용완 목사), 작은교회더사랑하기운동본부(대표회장 김영남 목사)가 있다.

## 결혼·채팅...이슬람, 한국여성 집중 포고

### FIM국제선교회 ‘크리스천을 위한 이슬람 세미나’

이슬람이 한국여성들을 집중적으로 포고하는 등 한국인에 대한 포고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FIM국제선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신반포중앙교회에서 ‘크리스천을 위한 이슬람 세미나’를 갖고 이슬람의 한국 내 포고현황과 한국교회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FIM국제선교회 유해석 대표는 ‘영국의 이슬람화 과정이 한국에 주는 교훈’을 제목으로 한 강의에서 “한국의 이슬람 인구는 10년 안에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OIC(이슬람이 국적이거나 주요 종교인 국가의 연합체) 57개국 출신자 12만8698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 2만3653명을 포함하면 전체 체류인원은 15만명이 넘는 다. 또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따르면 한국인 무슬림은 1970년 3700명에서 80년 2만2000명, 2005년 3만5000명, 2009년 7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국내의 내·외국인 무슬림 수는 최소 23만명에 달하며 현재 추세대로면 100만명 돌파도 멀지 않았다는 게 유 대표의 관측이다.

소운정 아세아연합신학대 선교대학원 교수는 ‘이슬람과 한국여성’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무슬림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성은 지난해 12월 현재 1638명”이라며 “이중 45.8%(750명)의 한국여성은 파키스탄 무슬림과 결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 교수는 이슬람이 특히 인터넷과 방송 등을 통해 한국 여성들을 집중 포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슬림들은 이들 매체를 통해 이슬람을 믿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길이고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하나님은 같은 존재라고 주장한다”면서 “교회는 헌금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봉사하는 것이라며 기독교를 의식한 발언을 통해 이슬람을 홍보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부다처제는 구약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남편이 이혼하지 않도록 부인을 4명까지 두게 함으로써 여성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교리도 적극 옹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도 “꾸란에 따르면 무슬림 여성은 반드시 무슬림 남성과 결혼해야 하며 무슬림 여성의 90% 이상은 같은 민족과 결혼한다”면서 “반면 무슬림 남성은 무슬림 유대인 기독교인 등 어떤 종교의 여성과도 결

혼할 수 있으며 이슬람법에 따라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게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세대가 갈수록 이슬람 인구는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 교수는 “무슬림과 결혼한 여성은 이슬람교의 교세확장을 위한 도구 된다”며 “이러한 결혼관의 차이로 인해 결혼한 많은 한국여성의 결혼생활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교육과 홍보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자들은 한국교회가 이슬람의 포고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 교수는 “무엇보다 무슬림 여성 전도와 한국 여성들의 복음화를 위해 이슬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여성목회자 리더십을 세우고 무슬림 선교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대표는 “영국 등 기독교가 발달하고 융성했던 곳들이 이슬람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문화 선교에 힘을 모으며, 신앙 전승물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봉 신반포중앙교회 목사는 “이슬람은 기독교의 구원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의 대상”이라며 “그들이 미사여구를 동원해 접근할지라도 정체를 바로 알고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키기 위한 당회 처리에 순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속법상으로는 ‘사단’으로서의 교회 역할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회 범죄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특정 직분자나 기관에 교회 의사 결정권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해중재원 부원장인 장우건 변호사는 교단 총회 재판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역설했다.

장 변호사는 “교회 정관이나 교단 헌법 등은 교회 재판을 법원의 간섭(사법심사)으로부터 막아주는 제도적 장치임에도 정작 교회 재판이 ‘중대한 절차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효력이 정지되거나(효력정지 가처분) 무효 판단(무효확인 판결)이 되곤 한다”라고 지적했다.

## 기감, 하나님의교회·신천지 등 9개 이단 지정

### 31회 총회서 결의...이단경계주간도 운영키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총인회)’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등 9개 단체를 이단으로 지정했다. 기감이 특정 단체들을 무더기로 이단으로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기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합과 더불어 국내 3대 개신교단으로 꼽힌다.

기감은 지난 31일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에서 개최한 제31회 총회 마지막 날 회무에서 이단성이 확인된 이들 9개 단체를 이단으로 지정기로 결의했다. 이단으로 지정한 곳은 하나님의교회, 신천지, 구원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여호와의증인,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물몬교), 전능하신하나님의교회, 제철일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 등

이다. 기감의 이단 정책을 총괄하는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이단대책위)는 해당 안건의 ‘결의 제안서’에서 “기감은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의 전통을 지켜왔다”며 “이를 견고히 하기 위해 이단 사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국교회에 큰 도전이 되고 있는 이단 종파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했다”며 이들 단체에 대한 이단 결의를 제안했다. 전용재 기감 감독회장은 제안서에 대한 반대의견 여부를 물었고 총대들은 이구동성으로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로써 기감이 지정한 이단은 총 10곳으로 늘었다. 기감은 1998년 제23회 총회에서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를 이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기감은 이날 총회에서 이

들 단체 외에 김기동 배리야 아카데미, 만민중앙교회, 큰민음교회, 평강제일교회 등 4곳을 ‘예의 주시할 종파’로 지정했다.

기감은 또 매년 종교개혁주일 다음 한 주간을 ‘이단경계주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단경계주간엔 이단에 대한 각종 자료를 일선 교회에 배포하고 이단 관련 세미나도 갖는다. 이밖에 주요 논의사항 중 하나였던 ‘21세기 찬송가 사용 중단’ 안건 처리는 보류됐다. 찬송가를 교체할 경우 적잖은 혼선이 예상되고 비용 부담도 큰 만큼 추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21세기 찬송가는 거역의 저작권료, 일부 작사·작곡자의 자질 시비가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예장합동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달 각각 개최한 총회에서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선 지난달 7일 선출된 전국 10개 연회 감독들의 취임식도 열렸다.

## 한국교회, 개혁·갱신 외면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교처럼...

### 종교개혁 497주년 기념 대토론회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와 (세계성령중앙협의회가 30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 대토론회-종교개혁 497주년, 한국교회의 개혁·갱신을 제안하다’라는 주제의 대토론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교회가 뼈를 깎는 자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00주년성령대회 대표대회장 겸 한국교회개혁실천 500인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는 개회사에서 “한국교회는 지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혼돈과 공허의 블랙홀에 빠져 표류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세상은 한국교회를 향해 제도개혁, 세습방지, 목회자 윤리 회복 등 밖으로 드러나는 개혁을 요구한다”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앙의 근원이 개혁될 때 제도로 정화되고 삶도 성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주채(향상교회 원로) 목사는 복음·전도·교회직분·교회공동체

의 변질, 지도자들의 윤리적 타락, 목회자의 과잉 배출과 질적 저하 등을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정 목사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신앙고백의 허구와 성장주의가 한국교회 타락의 주범”이라며 복음의 재발견,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신앙고백의 재확인, 민주적인 교회행정과 투명한 재정관리, 도덕적무장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처럼 돼 버릴 수도 있다”면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의 성장주의·세속주의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김명혁(강변교회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는 변영신과 성장제일주의에 사로잡혀 세상과 자신, 돈과 쾌락 명예를 사랑한 모든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지난 고난 약함 슬픔 아픔을 몸에 지니려 는 개혁과 갱신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공황을 넘겨야 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석순(한국중앙교회) 목사는 “

## 교주 안상홍 신격화 기사 등 공개

###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 ‘하나님의교회 5개 그림’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는 28일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총인회)’ 측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포고를 할 때 반드시 가르치는 그림 5개를 공개했다.

이단상담소협회가 공개한 그림은 재앙 장면, 이스라엘과 한국을 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세계지도, 이스라엘 독립선언 발표 사진, ‘주간종교’ 인터뷰 기사, 가족 개념도 등이다. 이들 5개 그림은 하나님의교회 측이 발간한 ‘확실한 증거’라는 핵심 포고 책자에 실려 있다.

하나님의교회는 포고 때 쓰나미, 지진, 전쟁, 핵폭발 사진을 보여주며 연연중에 위기감을 조성한다. 이때 포고 대상자가 불안감을 느끼면 “안식일과 율월절을 지켜야만 재앙을 피할 수 있다”며 미혹한다. 최근에는 재앙관련 동영상과 사진을 DVD 플레이어와 태블릿 PC로 보여준다.

세계지도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방의 땅 끝’에서 재림예수가 온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때 사용한

다. 하나님의교회 전도인(포교꾼)들은 지도에 자를 대고 이사야서 41장 9절을 들먹이며 “이스라엘로부터 일직선으로 동쪽 끝에 한국이 가르치는 그림 5개를 공개했다. 대한민국이며, 땅도 통치는 부산”이라고 강조했다. 교주 안상홍이 1964년 부산에 첫 하나님의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독립사진도 포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하나님의교회는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벤구리온 이스라엘 총리의 사진을 보여준다. 교주 안상홍의 등장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교회는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듯(삼하 5:4)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눅 1:32) 예수님도 40년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예수님이 3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때문에 다시 오실 재림예수가 37년을 채워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다.

## 성경, 2551개 언어로 번역

대한성서공회(사경공의회)는 4일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United Bible Societies)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12월말 현재 성경이 전세계에서 총 2551개의 언어로 번역됐다고 밝혔다. 소수 민족 및 부족 언어를 포함해 전 세계 언어는 7105개로 추산되고 있다.

신·구약 모두는 491개 언어로 번역됐고, 신약은 1257개, 단편(쪽복음)은 803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067개 언

어가 성경 번역에 사용돼 최다를 나타냈으며 아프리카 지역 748개, 아메리카 지역 519개, 유럽 지역 214개, 기타 지역 3개 순이었다.

UBS는 신·구약 성경이 올해 7월까지 10개 언어로 추가 번역됐다 고 소개했다. 이어 내년 말까지 신·구약, 신약, 단편을 포함해 100개 언어로 성경을 추가 번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성서공회는 직접 번역에 참여하지 않고 UBS에 재정을 후원하

한국교회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 더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 경쟁하며 살아간다”며 “심지어 세상이 우상이 되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까지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 타락한 모습까지 보인다”고 꼬집었다. 임 목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다 가진 자로서 이미 받은 구원의 복을 온 인류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자로 살아가는 개혁과 갱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명수 서울신학대 교수는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개혁 방향 10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수는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연합해 다양한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지나친 개척교회의 난립과 무리한 교회 건축도 중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인된 교회기관을 통해 교회 및 기관의 재정 운용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인건비 과다 지출과 특정인의 공금 유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전적 양식 있는 인물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나설 수 있도록 각종 선거제도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정인찬(백석신학대 학장) 목사는 “목회자들은 변질된 인간성을 먼저 개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회분쟁 예방위해 총회 재판위원 전문성 키워야”

###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

교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신앙적 측면과 사단(社團)적 측면을 명확히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교단 총회 재판위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남발하는 교회 문제의 사회법정 소송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새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주최로 최근 개최된 제8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회분쟁 예방 방안이 논의됐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헌재 교수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

동시에 사회법 상으로는 교인들의 단체인 사단’이라며 “이 두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특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교회 지배구조나 교인 권리, 담임목사 지위 등 교회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교회 운영, 가령 교리의 확립이나 예배 방법, 치리 등은 민주주의 적용 영역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신앙적 측면과 관련된 교회 운영의 모든 권한은 당회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며 그 범위 안에서 교인의 권리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인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고 있다. 1980년부터 매년 1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성경을 직접 출판해 기증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 대한성서공회는 매년 40여 개국에 30여만 부의 성경을 기증하고 있다. 호재민 대한성서공회 부총무는 “전 세계 언어 중 4554개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 민족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이 안 돼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다”며 “전 세계 전도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성경 번역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선교의 창 (19)

## 대학의 유래와 선교의 중요성

제임스송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내일의 세계를 정복하려면 오늘의 대학을 정복하라”라는 말이 있다. 대학에는 장차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들이 집단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석학인 말릭(C.H. Malik)이 말하기를 “대학은 서구 문명이 낳은 가장 위대한 산물 중의 하나”라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오늘의 대학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선교”라는 통상적 구호들은 결코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확실히 대학 캠퍼스는 사회 모든 곳을 적시는 일종의 물 근원과 같다. 여기서 흐르는 물이 정류인지 탁류인지에 따라 한 공동체의 미래 운명이 결정된다. 이에 우리 기독교회는 이 지성인 그룹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나타나도록 탄원하며 선교적 부

인 배경이다. 당시 대부분의 대학은 황제나 국왕 또는 교황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것이 관례였다. 연구단체와 국왕 등의 지배세력의 이해타산이 서로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 최초의 대학

중세 최초의 대학은 11세기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볼로냐(Bologna)대학이다. 이 대학은 최초의 서구 대학이자 남부 유럽 대학의 모델이 되며 법학의 중심지였다. 이 외에도 일반 교양과목과 의학, 철학 등을 가르쳤다고 한다. 탄생 연대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볼로냐(Bologna): 1180년, 파리(Paris): 1200년경, 옥스포드

(Oxford): 1200년경, 살레모(Salerno): 1200년경, 몬트펠리엥(Montpelier): 1180년경, 비엔나(Vienna): 1365년, 에르푸르트(Erfurt): 1379년,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1385년 등이었다. 15세기 말에 유럽에 80여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이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학은 볼로냐와 파리대학이었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 대학선교를 향한 문제점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ESF, CCC, IVF, ISI, AFC, UBF, Navigators 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역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 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 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되 힘이 약하다. 많은 지역교회와 교단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대학선교에 눈을 뜨고 같이 동역을 하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파괴력과 속도감을 내기 어렵다.

은 재미가 없다. 셋째 전문성과 관계된다. 대개 교회는 대중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대학사역은 단일 계층이다. 전문성을 요구한다. 나이, 언어, 거리, 시간, 문화, 의식구조 등 다방면에 거리감이 있다. 넷째로 이기심이다. 대부분 교회가 선교에 참여할 때 관계 지향적이다. 아무리 사역적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직접적으로 유익이 되거나 관계성이 없으면 동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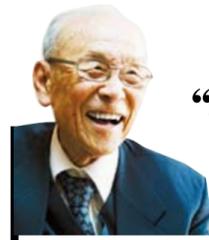
은 재미가 없다. 셋째 전문성과 관계된다. 대개 교회는 대중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대학사역은 단일 계층이다. 전문성을 요구한다. 나이, 언어, 거리, 시간, 문화, 의식구조 등 다방면에 거리감이 있다. 넷째로 이기심이다. 대부분 교회가 선교에 참여할 때 관계 지향적이다. 아무리 사역적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직접적으로 유익이 되거나 관계성이 없으면 동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맺는 말

동물의 왕국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짐승을 다 상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물의 왕

이라 할 수 있는 사자나 호랑이만을 집중적으로 다스리면 된다. 그들이 우리 대신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교도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를 순회하리란 쉽지 않다. 대신 미주 대학에 와 있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차세대 리더들을 선교하는 것은 전략적인 면에서 의의가 크다. 모든 영혼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존귀하다. 그러나 전술적으로 볼 때 일반 군인과 공수부대 요원 그리고 폭격기 조종사는 전투능력이 같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학선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대학선교! 이 사역은 결코 혼자서 할 수가 없다. 소명과 준비가 된 사람과 단체 그리고 지역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나아가 우리 교회에 물이 아래로 흐르듯 낮은 문화권에 발이라도 딛고 와야만이 선교했다는 이 의식이 깨지지 않는 한 대학선교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2천년전 로마 셋집에서 복음으로 외로이 승부했던 바울이 오늘 살아있다면 그는 과연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을까?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 방지일 칼럼 (63) “본대로 들은 대로” 자극을 은혜로

사람은 어떤 자극을 받을 때 큰 각성이 오는 경우를 많이 본다. 자극의 길이 다양하다. 자신의 개인 혹은 가족의 신병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생의 철학이 바뀌어진다. 또는 사업의 실패로 그걸 수 있다. 어버이로선 자녀들의 질병 내지 사망에서 큰 자극을 받게 될 때 삶의 방향이 바뀔을 본다. 천병 재해도 그럴 수가 있다. 그 변함이 좋게 변하기도 하고 좋지 않게 변하기도 한다. 이번 선교대회 때 한 저명한 석학이오 오랜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암 병이 그의 철저한 회개로 치유함을 완전하게 받아 그 삶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변하여 복음의 사자로서 활약을 친히 본 바이다.

내 목회생활 70년에 어떤 부모는 만혼으로 근 40에 생남하였다. 내외간 다 의사요 다 명의로 이름이 있는 분이다. 믿는 이기는 하나 깊은 신앙의 맛을 보지 못하였다. 그 가정에 늦은 첫 아들! 얼마나 귀히 기르는데 그만 중학진학 후에 병을 얻어 입원하였다. 고열이 될 때면 아이도 부모도 전화로 목사를 찾는다. 12시면 통행이 금지되는 때이다. 엠블런스를 보내 새벽이라도 간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열이 내린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이런 되풀이를 많이 했다. 퇴원했다. 입원 또 위기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이 확실하다. 그렇게 연속하다가 거어 세상을 떠났다. 가는 아이도 어버이에게 신앙의 간증이었다. 아들을 잃었지만 그 부모는 그 후 거리도 멀고 또 분주하신 중이라도 교회 출석을 잊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자극이 너무 컸지만 부모의 신앙에는 큰 은혜로 바뀔을 보았다. 내 책 중에 그 장례예배 설교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다.

이번 여행 중 들은 바로 다 상당한 지식인 내외로 3남매를 길렀는데 둘째가 그렇게 의젓하고 잘 생겼고 부모에게 효심 있었다 한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 이런 큰 자극이 또 있을까. 그런 중에 부모님들은 말이 없다. 속으로 애가 탐은 말할 것 없으나 펍이나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넘기는 줄 알았는데 친한 아에게도 별로 그런 말하지 않는 성격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원망을 토로하더라. 그럴 분이 아닌데, 이런 토로를 하더라 말을 듣고 이 분은 자극을 잘못 받았구나 느끼면서 이 글에 남겨둔다.

자극을 받되 보혜사의 역사가 개재하여야 바로 받는다고 보아진다. 자기 개성이 강하다. 자기 이성으로 판단한다. 보혜사의 역사가 없이 받는 자극은 도리어 이런 원망으로 변한다. 음의 경우를 보자. 지속적으로 날아오는 그 보고는 감잡을 수가 없었다. 전 재산이 다 없어졌다. 전 자녀가 몰살을 당했다. 그래도 음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찌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나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음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욥1:20-22). 그 되고 된 자극에서 이런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다시 음은 자신의 몸에 참혹한 곤욕을 치른 일 사단의 꾀계가 아니고선 있을 수 없었으나 음은 세 천구의 공격을 받으면서 방어하며 공격하는 공방의 양면작전을 쓰다가 저들은 음에게 패했으나 그것으로 그 받은 자극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을 친히 만나 뵈옵고 듣기만 청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친히 뵈옵는 시각, 아니 그 감각의 총동원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서는 자신이 증오의 대상이 되어진지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다른 번역엔 ‘스스로 미워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욥42:5-6). 감각의 총동원으로 하나님의 전모를 보고 참된 회개를 한다.

이런 자극에서 보혜사의 은혜로 이런 은혜에 듣게 된다. 어떤 자극에서나 자기를 성찰할 때에 물론 이도 보혜사의 역사이기도 하거니와 지나친 인간의 자존심 강한 주관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이다. 절대자 앞에 나는 있을 수 없음이다. 두 손 들고 내 자신이 투항함으로 절대자에게 돌아가는 일이 있을 뿐이다.

(2007년, 28권)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승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덴버에담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KoreanChurch.com	<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www.kpcd.org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벨연교회</b>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충성취임예배: 오전 10시, 18시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25-0288, Fax: (508)435-5467 2 Main St, Hkinton, MA 01748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영예배: 오전 10:45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634-0900 / 0989(백스쿨)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Tel: (860)458-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영-금) 토요일: 오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cattle.org	<b>알칸사 제자들과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jcs.org
<b>앵커리지델리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델리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53)536-8705, (253)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새벽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후 11:00(EM)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		



인도

■ 이 아이들을 주소서

매일 반복되는 델리 IDM(India Diakonos Mision)의 지번당 공동체 교회 인근 공립학교의 총 인원은 5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후 12시 반이면 오전반을 마치고 나오는 여학생들이 하교를 합니다. 곧 이어 1시부터는 남학생들이 오후반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등교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파릇파릇하고 생기 있는 모습들에 절로 마음이 흔들거리는 이유도 크지만 이 아이들이 여전히 3억3천이나 되는 힌두 우상과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건강하고 열린 세계관으로의 교육과 눈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봄물 타지듯 나오는 인도 학생들의 인산인해의 모습에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문을 저렇게 생기 넘치게 기쁨으로 임하는 그날을 더욱 사모하며 꿈꾸어 봅니다.

■ 잠무 카시미르 흉수 피해 소식

지난 달, 인도 최북단의 잠무&카시미르 지역에는 대규모의 흉수로 인해 현재까지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IDM 잠무 카시미르 지역 후체인 스텝이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잠무 지역과 스리나가르(Srinagar) 지역에는 이 흉수로 인해, 수많은 집들이 진흙으로 가득차고, 각 디스트릭(District)들이 고립, 봉쇄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IDM 스텝이 사역하는 지역의 인근

2개 마을도 동일한 피해들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협소한 교회 공동체 건물 안에 집을 잃은 이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제한된 공간과 물자들로 인해서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호소해왔습니다. 휘파람 이 들의 보급자리들과 가족을 잃고 친지를 잃은 실족한 마음들 위에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위로하심을 위해서 필요한 생필품들과 물자들이 부족하지 않게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실 것을 원합니다.

■ 새로운 IDM 스텝 Ravi & Halosh

인근 칼리지에서 B.Th를 마치고 새로이 IDM 델리 지부에서 헌신하게 될 라비(Ravi)와 헤로시(Halosh) 형제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라비형제는 펀잡(Punjab) 출신으로 영어와 힌디, 펀자비까지 구사하는 귀한 형제입니다. 헤로시는 아쌈(Asam) 출신으로 북동부에서 왔으며 영어와 벵갈리, 아쌈어를 구사하는 형제입니다.

현재 라비는 IDM 델리지부의 유스클럽 학생들을 섬기고 있으며, GEI의 고등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헤로시는 아버지가 목회자로 지역의 스텝으로 훈련되기 위해서 함께 하게 됩니다.

바라건대, 라비 형제와 헤로시 형제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델리지부 IDM의 알찬 운영과 지역 섬김의 중심이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들이 잘 훈련되고 온전하여져서, 다른 지역의 지부를 개척하고 몸된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즉 예이신대, 이곳에서 후보생으로서 훈련을 하면서, 새로이 보내질 타배자를 섬기는데 더 크게 사용되어지도록 아주 강한 여러분의 도교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들의 놀이터

라비 형제와 헤로시 형제가 기도하면서 이곳 아이들을 가르치고 리더하는 가운데, 중고등부 유스클럽반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말씀과 복음에 노출될 수 있는 귀한 접촉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섬기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중고등부까지 잘 신앙생활하고 모임에 참석하다가도 대학을 가게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공동체와 교회를 떠나 청소년들이 3-4년 간 계속 비록 떠나더라도, 청소년들이 말씀 가운데 이들의 가장 황금기를 거쳐 가는 귀한 공간과 놀이터로서, 아이들이 웃음이 가득하고, 청소년들의 생동감 넘치는 활동으로 웅성거리는 그런 공동체가 계속되어지도록 이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더 많은 이모와 삼촌들이 되어주시길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 현장의 후배들을 위한 교수

지난 9월 중순부터, 델리 외곽인 서델리(Western Delhi) 부근의 PBTS(Puritan Bible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학개론과 대선지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B.Th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하게 되지만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고, 현장을 잘 섬기기 위한 이들의 훈련과 학업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어지기 위한 소망과 기대로, 부족한 나눔들과 교습들이 이들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되기 위한 조력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강의 준비와 나눔들, 특별히 힌디권의 학생들에게 영어로 강의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없도록 마음 모아 주시고, 거주하는 곳에서 편도 약 2시간반, 왕복 5시간을 오가는 차량운행 가운데 안전을 위해서도 간곡한 여러분의 기도부름의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1. 각 주와 각 지역 IDM 스텝들과 공동체 섬김이들의 지속적인 사역과 교회개척, GEI영어 성경반 및 컴퓨터 교실을 통한 마을 개척 사역들을 위한 헌신과 섬김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중보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주세요.

2. 새로이 등록되어질 델리 IDM의 정부산하 NGO로서의 등록절차들이 잘 진행되어지도록 강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조사와 어려움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3. 델리 IDM의 책임자인 알빈의 남은 신학교육과정과 생계를 위해서, 새로이 함께 하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될 라비와 헤로시의 사역비와 장학지원을 위해서, 함께 이들을 세우시고 지원해 줄 교회와 후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4. 새로이 시작된 신학교 강의 준비와 함께, 인도의 열악한 교통상황 속에서, 장거리를 오가는 긴 차량운행 가운데 안전을 위해서 더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강건안과 다성이기 이제는 현지학교에서의 학업진행의 한계들이 있어, 부모를 떠나서 기숙사식 학교로의 전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과 아이들의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동역자분들의 마음 모음을 요청드립니다.

6. 인도 현장에 있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집안에서도 단어의 한글 공부와 말하기, 대소변 가리기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세심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디아코너스 선교회

함경식&박인자 선교사

《4면에서 계속》

그 와중에서 로마 감독 마르셀리누스는 살기 위해 배교를 선택하는 일도 있었다.

특히 304년 4월 30일에 선포된 네 번째 칙령에 의한 핍박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사자들에게 살육을 당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인육을 먹던 맹수들이 사람들을 찢어 죽이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칙령으로 세바스티안이 순교를 당했다. 그는 황제의 경비대장으로 핍박받고 수감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밀리에 도와주던 사람이었다. 그는 황제에게 밀고 당하여 신분이 들어나게 되었고 자신의 측근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화가난 황제는 마우레타니아 궁수들을 시켜 세바스티안을 나무에 묶어놓고 활을 쏘도록 명령했다. 그는 수많은 화살을 맞고 죽었고 시체는 버려짐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기적처럼 죽지 않았고 아내의 도움으로 구조되어 정성어린 간호를 통해 회복되었다. 회복된 세바스티안은 황제가 다니던 길에 기다렸다가 황제를 향해 큰 소리로 경고했다. 무고한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핍박을 멈추라고 말하다. 죽었다고 여겼던 황제는 한동안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곁에 있는 병사들에게 저를 때려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는 친위대에 의해 맞아 죽었고 시체는 하수구에 버림을 당했는데 어느 여 성도에 의해 카타콤 베에 안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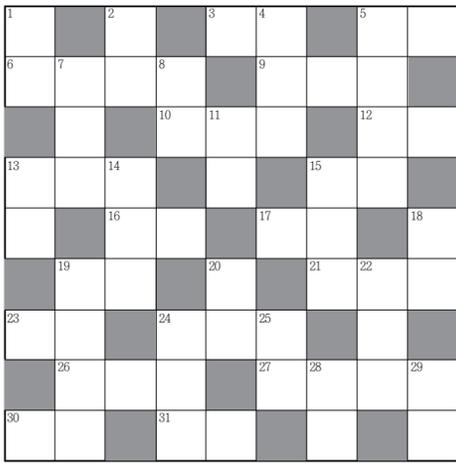
이런 일도 있었다. 디오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가계 여인인 수산나를 황제 갈레리우스와 결혼을 시키려고 강제적으로 약혼을 시켰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수산나는 황제의 부인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수산나는 자신이 신자임을 고백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 순교를 선택하는 일도 있었다. 저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의 영광을 대수롭게 여겼나. 무엇이 그녀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였을까?

성 밖의 세 분수 수도원의 천국의 계단 성당 지하에 가면 디오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목욕장공사에 징집되었던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있다. 각 지역에 산재했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노예처럼 일을 시킨 후 이곳에서 1만203명을 죽였으니 그 때 순교당한 사람들의 수는 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핍박은 머지않아 나타날 콘스탄틴 황제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한 전조였음을 알게 된다. 어둠이 더할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는 말처럼...

영적 어둠이 온 누리를 뒤덮고 있는 이때 성도된 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십자말 • Cross Word (58)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3. 벗, 친구, 북한 도포들이 잘 씌.
5. 빌라도의 관직(요5:3).
6.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함. 노아의 12대손(창17:5).
9. 레위지와 고핫의 손자(출6:22).
10.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된 자(행1:26).
12. 많은 병사의 군대(왕하18:17).
13. 남달리 족속의 성읍(수19:36).
15. 높은 벼슬아치의 집에서 주인을 섬기던 사람(창14:15).
16. 에셀의 자녀(창36:27).
17. 넓은 들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출3:1).
19. 우아한 노래, 고상한 노래. 구약 중의 한 권.
21. 모세시대의 스블론 사람인 엘리사반의 아버지(민34:25).
23.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예이엘의 아들 마야가의 소생이다(대상8:31).
24. 오리과에 속하는 새로, 가을에 오고 봄에 가는 철새.
26. 베냐민의 자손(대상7:10).
27. 아론의 장인(출6:23).
30. 아프리카 남쪽의 늪에서 서식하는 큰 짐승. 물말?(욥40:15).
31. 남달리지와 아비노암의 아들(삿4:6).

<세로 푸는 열쇠>

1. 사내 아이(욥3:3).

2. 한 세겔의 20분의 1에 해당하고 또 0.57g으로 중량의 제일 작은 단위(출30:13).
4. 소아시아 서북부에 있는 한 도.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시에 이곳을 통과했다(행16:8).
5. 대신들 중의 우두머리(대하28:7).
7. 에스겔의 계획한 실지 회복의 땅 경계지(겔47:16).
8. 남달리의 성읍(수19:35).
11. 그들라오멜과 동맹한 고임왕(창14:1).
13. 아담의 둘째 아들로 목자.
14. 다윗의 30용사 중 한 사람인 엘리벨의 고향(삼하10:6).
15. 예수님 때에 유대의 대제사장. 전 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요 사두개 교인(마26).
18. 아르바의 아들(신1:28).
19. 가롯 유다가 은사 예수를 판 은 30으로 산 밭. 피밭(행1:19).
20. 얼마만큼. 얼마간(삼상17:25).
22. 실로의 북편에 있는 성읍(삿21:19).
24. 이스라엘 사람으로 느디님 사람의 두목(느11:21).
25. 팔레스틴의 한 지명(삼하2:24).
28. 맛을 느껴서 아는 감각(욥6:30).
29. 남에게 받은 예를 도로 갚는 일(대하9:12).

십자말 정답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 봄 성지순례 일정>

-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 2015. 2.16~2.26 - 이스라엘+요르단3개국(10박11일) \$2,699
- 2015. 3. 2~3. 9 - 터키+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 2015. 3. 2~3.12 - 터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 2015. 3. 2~3.14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의 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동독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종교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순례 및 정담,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 시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Olympic Blvd.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 건너)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 10. 사모의 행복 가꾸기- 사모의 사역 가꾸기(3)

〈인도사역〉 제 19기 CMF 사모교실의 주제는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강의였던 인격 가꾸기와 워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 사모의 사명 가꾸기 시간을 통해 희미해졌던 사명과 사모의 정체성의 회복을 맞본 사모들에게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인격 가꾸기입니다. 이미 신명지상을 통해 소개된 내용이지만 현실 속에서 어떤 반응을 가져오는가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신 후 나사로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벌떡 일어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참 이상합니다. 베에 동인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향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풀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덤 안에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킬 때 아예 깨끗하게 풀어주시는 다음 씩씩하게 걸어 나올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풀어 놓아 다니게 너희들이 하거라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을 해결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는 뭇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서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이것이 잘되지 않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이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십자가의 사명이 반드시 옆으로 흘러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인격에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스스로 묶여지게 되며 사랑을 하고 싶으나 잘 되지 않고 성격 이상자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어릴 때 거절을 많이 당하면서 성장할 경우 거절감에 사로잡혀 모든 하는 일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면 역을 할 일을 당

## 어디나 산재한 사역자들 간 갈등 인간관계로 풀어야 사람들끼리 해야 하는 코이노니아, 교회내 필수요소

특히 어느 선교지를 막론하고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간의 내적 갈등은 다 있는 법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모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많은 에너지를 앗아가게 되며 심지어는 육신의 병까지 얻어 고통을 겪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이 인격에 병이 든 까닭입니다. 사명감에 불이 붙어 열심히 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인격의 병이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주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어 나오게 됩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생겨진 성격장애가 선교지에서 불어닥쳐 나올 때 생기는 문제들을 사모들은 직접 겪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집니다.

애정결핍, 분노, 상실감, 두려움, 열등의식, 완벽증, “조해리의 창”이라는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자아는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1.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입니다. 2.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3.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4.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나의 인격에 무슨 병이 걸렸는지 아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면 영적 문둥병에 걸린 셈입니다.

“황순원의 사모교실”에 보면 필자는 남편의 사별이후에 만난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영적문둥병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인격가꾸기는 사역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더욱 더 중요합니다. 특히 선교지에서 드러나는 증세들을 재빨리 발견하여 고침받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으로 인해 받는 상처 또한 커지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죽은지 나흘이나 되어 밤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죽은지 오래되어 썩은 밤새 나는 시체를 어떻게 살리시겠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입니다 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면서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마침내 돌을 옮겨 놓게

했을 때 원치 않는 누명을 쓰고 있는 경우 분노가 쌓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차별대우만 받고 자란 경우 사랑에 집착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보고 자란 경우 두려움에 묶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리 없는데... 나는 언제나 문제 있는 아이야 하며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 혹은 완벽주의 부모아래 성장한 경우 나는 언제나 완벽해야 돼 하며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 인격의 병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병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풀어 놓아 다니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있는 워십은 그룹토의를 통해 사모들의 스트레스의 원인과 해소방법 그리고 나의 인격의 병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서로 서로 사역하는 동안 받아온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발표하며 내어놓으므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조별 발표를 들어봅시다. “어느 정도는 나의 쓴뿌리를 알고 있었으나 이번 시간을 통해 쓴뿌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주님께 더 내려놓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님의 인생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의 깊이에 순간순간 도전과 격려를 받았고 나 또한 하나님의 깊이와 온유함에 빠지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H사모).

“고통을 외면하고 싶지만 그 고통이 성숙시키심을 알기에 끌려왔던 시간들이었는데 이런 고통을 즐기며 그 고통 속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며 영성의 깊음 속에 거하고 싶은 나의 깊은 바람이 더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고통의 몸부림 결과 저에게 가까이 빛으로 역사하신 그분으로 나는 날마다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T사모).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 월 주를 따르자(요7:1-13)찬338장

그리스도인은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주를 잘 따를 수 있습니까? 첫째, 때에 민감하신 주님을 본 사모야 합니다(6). 주어진 시간의 존중을 다루는 기회이시어 총만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기를 들어내시고 숨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잠잠할 때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여기 “내 때”는 십자가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실 정점을 가리킵니다. 인생의 근본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될 때를 알

고 그 때를 향해 겸손히 부지런히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은밀하게 일하셨습니다. 형제들이 나타나기를 구하지만 모든 일을 은근하고 겸손하게 일하셨습니다. 셋째, 육적으로 가까이 갔다하여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에게 더 깊이 가까이 못하면 누구든지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구원은 선물로서 계시로만 되는 것이기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걸으십시오.

### 화 다른 보혜사(요14:25-31)찬174장

요14-16에 보인 예수님 고별설교의 위로와 교훈과 경계에서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첫째, 이것은 교회에 위로의 근원을 주십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삼위 하나님을 곁에서 도우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은 기묘자요 모사로 말한 이사야의 증거(사49:6)와 평행을 이룹니다. 성부는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시고 그 구속을 자기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이십니다. 그러

므로 새사람으로서의 모든 체함은 바로 성령님의 일하십니다. 둘째, 주님을 증거하려 오신 보혜사는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26). 이는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의 비침이 풍성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어두운 내 눈을 뜨게 하사 지금 상황에서 순종하고 헌신할 진리의 길을 보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 수 그리스도 죽음의 효능(요14:12)찬188장

본문은 주님의 별세가 제자(교회)에게 유익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첫째, 구속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 생긴 모든 죄, 형벌, 죄책, 원죄가 완전히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구속 곧 죄사함”이라 표현했습니다(엡1:7). 둘째, 주님의 죽음으로 주님이 제자들 속에서 계속 일하신다는 신비로운 사건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란 바로 별세하신 그리스도의 공로 곧, 그리스

도 위에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별세하신 주님의 공로가 교회에 그대로 임해 영원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셋째, 그 연장선에서 교회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엄청난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공의 제한을 벗어나 신자 개인 안에서 주님은 계속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선언입니다. 즉 주님의 죽음은 세상에 하나님나라를 세우기까지 친히 일하시되 교회를 동참시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 목 두 종류의 사람(요12:34-43)찬539장

본문은 불신앙자인 유대인과 믿는 자의 기원 목적 결과가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불신앙적 전통의 율타리 속에서 기적을 맞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오직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마11:27). 첫째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분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이 복 중 복인 이유가 짐승의 기질이 성도의 기질

로 바뀌어 그 속에 제도적 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울퉁불퉁 흠집이 있어 거칠어보여도 주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은 성품으로 만드십니다. 둘째, 유대인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작정의 나타남이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팔이 나타났는데도 믿지는 않던 대적자가 됐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기회가 내게도 주어진 줄 알고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 금 하나님께 영광(요12:28)찬488장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성부와 성자의 신비스러운 연합은 성자의 성부와의 교제 속에 보여집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사명을 쥐 보내셨고, 성자는 성부의 계획과 방법에 따라 하나도 남김없이 최대의 진리로 이루셨고, 또 이루어 계십니다. 둘째,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되는 구속의 결과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됨을 나타냅니다. 성자는 절대순종으로 일관하셨고 성부는 절대주권자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부의 일은 실패가 없었고 성자의 순종 역시 흠이 없기에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셋째, 신자는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고전10:31). 이것이 하나님 영광의 부요를 모든 일, 시간, 영역에 임하게 하고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계절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의 순종으로 이미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 토 고난의 목적(요11:1-16)찬43장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주장이 더 분명해졌고 반면에 신성목이라는 유대인의 주장으로 생긴 첨예한 대립은 나사로의 부활사건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나가신 본문에서 우리는 무슨 진리를 배웁니까? 첫째,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기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하나님”의 생사학박이 이 주장의 수반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 예비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의 문제는 주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려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주님 손에 들려지는가에 있습니다. 들려진 문제는 모두 복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사건으로 1)제자를 훈련하셨고 2)자신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드러내셨고 3)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나의 주 예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82)2-2646-9419, Fax: (82)2-436-5770 군포시 금곡동 870-4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2:00 금요침례기도회: 오후 9:00 Tel: (82)523-9479, Fax: (82)522-4834 500-170 경교장역사 북구 중앙동 936-1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침례기도회: 오후 9:00 Tel: (82)3208-8491-5, Fax: (82)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침례기도회: 오후 9:00 Tel: (82)31-977-8383-9, Fax: (82)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흥인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267(로마한인) VIA DEI QUINTILI 32-39 00175 ROMA, ITALY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3동 330-5, (134-830)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월요일은 휴무한데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Fax: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호신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3동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토요일은 쉰다) www.seongsil.or.kr Tel: (82)2-999-0988, Fax: 9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3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313-26호	<b>수영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11: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0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82)732-2341-3, 사택: (8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인왕동 137 번지	<b>시온사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82)1253-1004, Fax: (82)1253-101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이의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사택: (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82)418-0491, Fax: (82)422-0751 서울시 송파구 개포동17길 29(신일동) www.shincheon.org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침례기도회: 오후 8:30 Tel: (82)2-786-6579, 사택: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침례기도회: 오후 8:30 Tel: (82)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제1기 146-7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82)210-5500, Fax: (82)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동 415 www.yang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침례기도회: 오후 9:30 Tel: (82)842-6881, Fax: (8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내3동 448-23	<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43275-9191, Fax: (82)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인/터/뷰

“두 개의 특별한 연주회” 준비하는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정종원 교수  
CCM페스티벌과 클래식 ‘Mozart, His Passion’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송정명 박사) 음악과(과장 윤임상 교수)에서 ‘두 개의 특별한 연주회’라는 주제로 학생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 윤임상 교수는 “매 학기마다 월드미션 대학교는 학생연주회를 하고 있다. 특별히 이번 가을학기에는 실용음악과 클래식을 나눠 두 개의 특별한 연주회라는 주제로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WMU 학부담당교수로 부임하게 된 정종원 교수는 자신이 음악활동을 하면서 터득하게 된 것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음악을 20년간 해왔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로 활동하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찬양사역을 해오면서도 노래에 대해 해결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고민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고민이 6개월 전쯤 정리가 되니까 노래하는 것이 훨씬 편해졌어요. 노래하는 원리에 대해 터득하게 되니까 저처럼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이 부분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정종원 교수가 자신이 터득한 원리를 몇몇 학생들과 나눴더니 그들의 표정이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정종원 교수, 윤임상 교수

연주자로 윤국형, 이병걸, 백정열, 박희진, 최솔이 나선다. 참가자들은 한 곡씩 부르게 되며 한 곡을 합창한다. 또한 가스펠코어가 찬조 출연해 공연을 빛내게 된다.

정종원 교수는 “이번 페스티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앙상블 수업에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발전된 모습을 공연을 통해 공유가 되거든요.”

정 교수는 WMU의 장점은 학생과 교

수자로는 전창한, 김레베카, 김은정, 박정환, 오정근, 안효정 등이 지휘자로 나서며, 소프라노 신선미, 김미진, 이보은이 무대에 올라 노래하게 된다. 그리고 특별출연자로 본교동문 테너 오위영 목사, LA오페라단원인 베이스 Patrick Blackwell이 나서게 된다.

윤 교수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WMU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생지도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특별히 학교의 커

영성과 음악실력 겸비한 사역자 배출이 목적

바뀌며 신비해지는 것을 보게 됐으며 WMU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학생들과 나누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동안 WMU 학생연주회는 클래식과 실용음악이 함께 하는 연주회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 7월 새로 찬양사역과 학부담당 교수로 부임한 정종원 목사 주도로 오는 18일(화) 저녁 7시30분 생명찬교회(담임 김동일 목사 3020 Wilshire Bl)에서 CCM페스티벌을 갖는다. 그리고 클래식 공연은 22일(토) 저녁 7시30분 LA다운타운에 위치한 지퍼홀(200 S Grand Ave)에서 16회 학생음악페스티벌로 갖게 된다.

윤임상 교수는 “CCM페스티벌과 학생음악페스티벌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배웠던 것들을 공연을 통해 나타내는 결과물”이라 언급하고 “연주회를 통해 학생들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정종원 교수는 “CCM페스티벌은 이번이 처음으로 컴퍼러리 학과 자체 무대로 마련이 된다”며, “이번 연주회를 통해 학생들이 좀더 단합되고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Praise the Lord’라는 주제로 열리는 CCM 페스티벌은 총 8팀이 참가하게 된다. 참가자는 최윤영, 허지애, 장슬기, 이찬영, 박선민, 김소연, 김준 등이며,

수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라며, 녹음 지도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이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때는 소리 하나하나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음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쓰게 되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되지요. 노래는 그냥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한 녹음과정이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 지루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프로페셔널 음악인이 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됐다. 바로 즉석오디션이다. 오디션 참가는 각 교회 노래잡하는 학생들 중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오디션을 통해 1천달러 상당의 기아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CCM페스티벌에 이어 22일 지퍼홀에서 학생음악회를 준비 중인 윤임상 교수는 “이번 음악회의 주목적은 학생영입에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연주회에 참석해서 학생들의 퍼포먼스도 보고, 학교등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16회 학생음악페스티벌은 ‘Mozart, His Passion’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1악장을 비롯 ‘피가로의 결혼’, ‘Die Zauberflöte’, ‘Exsultate, Jubilate’ 등이 연주된다. 연

리컬럼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실력도 향상되고 있으며 그것이 이번 음악회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윤임상 교수는 “16회 동안 학생연주회가 꾸준히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음악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영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목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음악인들은 많지만 사역적 측면에서 영성까지 겸비된 경우가 쉽지 않은데 WMU를 통해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정종원 교수는 “교회라는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역자들이 배출됐으면 합니다. 교회현장에서의 고민은 좀더 전문성을 가진 자들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영향력 나타낼 수 있는 많이 파송되고 인정받았으면 해요”라며, “예배자로 다윗을 떠올립니다. 다윗 같은 자들이 많이 양성돼 교회음악의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합니다. 이민교회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데 차세대를 이끌 수 있는 예배와 찬양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역자 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중국교회와 한국교회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통한 세계복음화 운동 (3)

2. 공산주의의 기독교 박해  
중국 1951년까지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삼자 교회의 지도자들인 우야중 목사(YMCA의 총서기)와 중국기독교협회 총무 등광훈 목사를 선두에 내세우고 삼자교회를 강화시키며 반삼자교회회를 박해하였다. 삼자교회를 반대하는 어떤 기독교 지도자라도 바로 구금되었다. 위치만 리와 왕명도는 박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 셀 수 없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박해로 고통을 받았고 강제노동수용소로 쫓겨났다.

현재 가정교회와 삼자교회의 급격한 성장은 지난날 공산정부 치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고난의 결과이다.

교회는 교회 내에 공산당의 앞잡이라고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삼자교회는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을 박해했다. 중국정부가 가정교회를 박해하는 동안에는 이 두 공동체 간에 갈등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 중국의 가정교회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시골의 주민들 사이에 널리 분포되어있다. 비등록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적은 숫자가 모이지만 생동감이 있고, 감격이 있으며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다. 현재 가정교회는 중국 전역의 도시를 가운데서 확산되고 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 존재하는 3,000개의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중국 전역에 80,000개의 가정교회

중국공산당의 기독교 박해로 가정교회 급성장  
중국과 유사한 에베소... 바울의 선교전략 주시

북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터툴리안(170-220)은 사형집행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1979년 이후로 구금되었던 지하가정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부분적인 자유가 주어지면서 중국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전 세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국의 고통 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3. 가정교회 VS 삼자교회

가정교회와 삼자교회 간의 수십년동안의 해묵은 갈등과 불신은 많은 가정교회의 지도자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1937년 한국교회에 있었던 신사참배를 떠올리게 한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회의 지도자들은 수감되었지만 일본정부의 요구에 응했던 지도자들은 그들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 감옥의 성자들과 타협자들의 갈등은 194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서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1951년 수감되었던 지도자들은 한국장로교회 내에 새로운 교단(부산의 고려교)을 세우게 되었다.

삼자교회는 중국의 국가종교사무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에 있다. 모택동의 시대(1948-1976)에 중국정부는 모든 주요 기독교 활동을 관리하였다. 삼자

가 있다고 보고했다. 가정교회들 중에 많은 수는 중국 외부의 다양한 기독교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경우에 가정교회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교단들이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II. 중국 교회에 대한 바울의 선교전략

역사는 발전을 겪으면서 종종 반복된다. 역사에 대한 동양적 관점은 삶을 순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출생하여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생, 노, 병, 사의 역사관”이었다. 반면에 역사에 대한 서구의 세속적인 관점은 “나사모양의 역사관”으로 농경사회에서 봉건사회를 거쳐서 자본주의와 현대주의의 그리고 결국에는 후기현대주의에 이르기까지 문명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1세기의 사도 바울의 선교전략은 21세의 선교전략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다. 1세기의 교회와 사회는 중국 교회와 사회의 현재 상황과 매우 중요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만약 사도 바울이 현재에 살았다면 그는 분명히 에베소를 주목하고 에베소교회를 위한 그의 선교전략을 중국교회의 모델로 삼았을 것이다.

(계속)

가정이 소중한기에, 패밀리 터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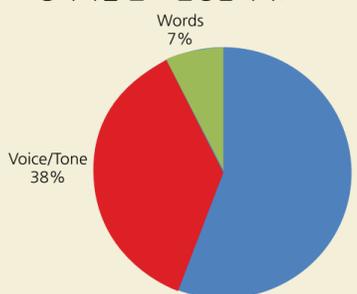


제1기

대화기술 강사교육

대화가 안된다구요?

대화기술 전문코치로부터 10가지 대화기술을 배우므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변화를 경험하세요. 또한 직장과 교회에서 대화기술 강사되실 분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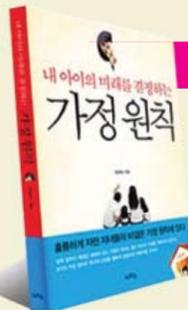
사랑의 대화기술(MML) 10가지 배우기

1. 이해하는 기술
2. 표현의 기술
3. 토의의 기술
4. 코치하는 기술
5. 갈등 해결의 기술
6. 문제 해결의 기술
7.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술
8.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기술
9. 생활화의 기술
10.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

- 날 짜: 11월 14일(금) - 15일(토) (10am-5pm)  
- 장 소: 패밀리터치 (240 Grand Ave. #6 Leonia, NJ 07605)  
- 수강료: \$280

제6기

자녀양육 강사교육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정원칙

- ▶ 가정원칙만 실천해도
- ▶ 확연히 달라지는
- ▶ 부모와 자녀관계

자녀양육 베스트 셀러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정원칙'의 저자 정정숙 박사의 직강으로 자녀양육 강사교육을 실시합니다. 목회자, 소셜워커나 상담가, 교회학교 교사나 평신도 지도자 등, 다음 세대 교육을 맡은 분들이 효과적인 자녀양육 강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제공과 함께 효과적인 강의기술을 전수해 드립니다.

- 날 짜: 12월 5일(금) - 6일(토)(10am-5pm)  
- 장 소: 패밀리터치 (240 Grand Ave. #6 Leonia, NJ 07605)  
- 수강료: \$280